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碩士學位論文

# 갈옷 드레스 패턴에 관한 연구

-50대 여성을 대상으로-



濟州大學校 大學院

衣類學科

姜志淑

2011年 2月

# 갈옷 드레스 패턴에 관한 연구

-50대 여성을 대상으로-

指導敎授 權淑姬

姜志淑

이 論文을 理學 碩士學位 論文으로 提出함

2010年 12月

姜志淑의 理學 碩士學位 論文 認准함

審査委員長 이은주

委員 부애진

委員 권숙희

濟州大學校 大學院

2010 年 12月

## 국 문 초 록

건강, 인체위생, 더 나아가 친환경성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고 이에 따라 천연염색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천연염색 중 하나인 감물염색은 자외선 차단효과, 활동성, 위생성, 내구성, 통기성, 강연성, 방수성, 방충성, 향균성 등 기능적이고 위생적인 기능을 가지고 있고 제주도에서는 이러한 다양한 기능을 가지고 있는 갈천을 이용하여 의복을 만든 것이 잘못이다. 현재 기능적이고 위생적인 기능이 있는 친환경 상품인 갈옷의 인지도와 선호도는 많이 낮은 상태이다. 갈옷의 문제점 중 가장 큰 문제점은 갈옷제작업체의 각각의 의류제품 치수 체계 및 호칭이 상이하며 동일한 호칭이라도 제작업체에 따라 적용하는 인체치수가 달라 소비자의 불편을 야기한다. 그리고 대부분의 젊은 여성의 의복 패턴을 중심으로 의복이 제작되는 실정이라 다양한 체형을 가진 중년여성의 의복 구매자들이 신체적합성이 높은 갈옷 드레스를 찾기는 더욱 어려운 실정이다.

본 연구는 체형변화가 가장 큰 50대 중년여성을 연구대상으로 하였고 중년여성의 BMI를 기준으로 3가지체형으로 나누고 Size Korea(2004)의 50대 인체치수 자료와 직접계측 자료에 의한 50대 중년여성 체형을 고찰한 후 정상체형(94-97-155), 과체중(97-100-160), 중도비만체형(100-103-160)으로 본 연구의 치수체계를 설계하였다. 기존 드레스원형에 예비 착의평가를 실시하여 수정 후 비교원형을 제작하고 이를 기본으로 2차 착의평가를 실시한 후 수정·보완하여 50대 중년여성 체형에 맞는 갈옷드레스 연구원형을 제작하기 위한 목적으로 연구되었다.

연구 대상은 신체변화가 가장 크게 나타나는 50~59세의 중년여성으로 하였다.

치수설정은 BMI지수를 기준으로 하였고, Size Korea 5차 한국인 인체치수조사를 통하여 50대 중년여성의 표준치수와 직접계측 치수를 바탕으로 이루어졌다.

BMI지수를 통한 체형분류의 적합성을 규명하였고, 비교원형과 연구원형의 외관에 대한 관능검사를 실시하여 연구원형의 적합성을 규명하였다.

자료분석 방법은 SPSS/PC +12.0 Package를 이용하여 일원배치 분산분석(one-way ANOVA), 상관관계분석(correlation coefficient), T-검정(T-test)을 실

시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살펴보면, 첫째, Size Korea(2004) 인체치수 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가슴둘레, 젖가슴둘레, 젖가슴아래둘레, 허리둘레, 배꼽수준허리둘레, 엉덩이둘레와 몸무게의 상관관계가 매우 높고 두께-너비 관련 상관관계수를 보면 젖가슴너비, 허리너비, 배꼽수준허리너비, 젖가슴두께, 허리두께, 배꼽수준허리두께와 몸무게의 상관관계도 높게 나왔다.

둘째, Size Korea(2004)의 50대중년여성의 표준치수와 직접계측 표준치수를 비교한 결과 BMI, 허리둘레는 Size Korea(2004)의 50대 중년여성의 표준치수가 높게 나왔고 키, 몸무게, 등길이, 앞중심길이, 가슴둘레, 젖가슴둘레, 젖가슴아래둘레, 배꼽수준허리둘레, 엉덩이둘레는 직접계측 표준치수가 높게 나왔다.

셋째, 비교원형과 연구원형의 외관에 관한 관능검사 결과 둘레항목 여유분에 대하여 유의한 차이가 났다. 여성의 연령이 증가할수록 몸무게와 수평항목이 증가한다는 선행연구의 결과로 사료된다.

넷째, 앞목둘레선과 뒤목둘레선의 여유분에 대하여 유의한 차이가 났다. 중년 여성의 체형이 바른체형 다음으로 숙인체형과 흰체형이 많다는 선행연구의 결과로 사료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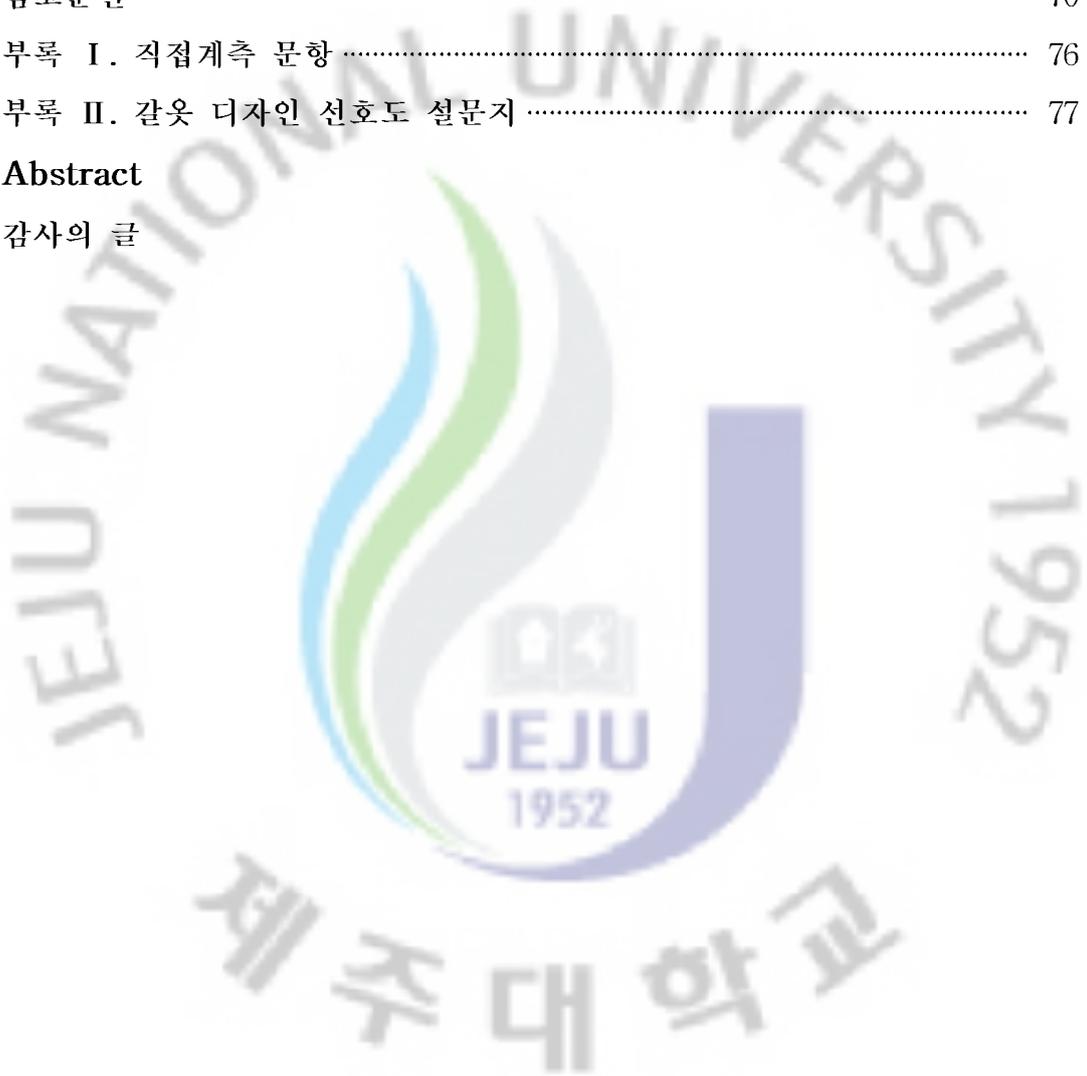
다섯째, 연구원형을 KS의류치수규격 그레이딩 편차를 적용하여 정상체형(94-97-155), 과체중체형(97-100-160), 중도비만체형(BMI 28미만)-(100-103-160)의 갈옷드레스 연구원형을 제작하여 본 연구 피험자에게 착의시켜 착의평가한 결과, 전체적으로 신체에 적합한 갈옷드레스 원형으로 검증되었다.

# 목 차

국문초록 .....	i
표 목 차 .....	vi
그림 목차 .....	vii
<b>I. 서론</b> .....	1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1
2. 연구내용 .....	3
<b>II. 이론적 배경</b> .....	4
1. 갈옷의 유래와 전망 .....	4
2. 천연염색의 정의와 전망 .....	6
3. 체형변화에 따른 원피스 드레스의 선행연구 .....	7
4. 여성의 연령에 따른 체형변화 및 특징 .....	8
1) 성장기의 신체적 특징 .....	8
2) 20대 신체적 특징 .....	9
3) 30대 신체적 특징 .....	9
4) 40대 신체적 특징 .....	10
5) 50대 신체적 특징 .....	10
6) 60대 신체적 특징 .....	10
5. 중년여성의 연령구분 및 신체적 특징 .....	11
1) 중년여성의 연령구분 .....	11
2) 중년여성의 신체적 특징 .....	12
6. 비만-수척 요소에 의한 체형분류 .....	15
<b>III. 연구방법 및 절차</b> .....	18
1. 연구의 구성도 .....	18
2. 기성복 치수 설정 .....	19
3. 직접계측 및 피험자 선정 .....	21

1) 연구대상 .....	21
2) 측정방법과 측정항목 .....	21
3) 측정기준점 및 기준선 .....	21
4) 측정항목 .....	21
5) 피험자선정 .....	21
4. 갈옷드레스 디자인 선정 .....	24
5. 갈옷드레스 치수 선정 .....	25
6. 갈옷드레스 비교원형 패턴설계 .....	26
7. 착의실험 .....	29
1) 감물염색 .....	29
(1) 시료 .....	29
(2) 염색방법 .....	29
2) 실험衣 제작 .....	29
3) 외관평가 .....	30
(1) 검사방법 및 평점 .....	30
(2) 자료처리 및 분석 .....	30
<b>IV. 연구 결과 및 고찰</b> .....	<b>33</b>
1. BMI집단 간 젓가슴둘레 차이 .....	33
2. 직접계측한 50대 여성의 인체치스 간의 상관계수 .....	33
3. 여성의 인체치수 간의 상관계수 .....	34
4. 갈옷드레스 디자인 선정 .....	40
5. 갈옷드레스 비교원형 패턴설계 .....	42
1) 갈옷드레스 비교원형 패턴 선정 .....	42
2) 갈옷드레스 비교원형 설계 .....	42
6. 갈옷드레스 연구원형 패턴 설계 .....	46
1) 갈옷드레스 연구원형 설계 .....	46
(1) 민소매 갈옷드레스 연구원형 .....	46
(2) 반소매 갈옷드레스 연구원형 .....	48
7. 갈옷드레스 비교원형과 연구원형 착의평가 .....	50

1) 외관평가 결과 .....	50
(1) 민소매 갈옷드레스의 외관평가 결과 .....	50
(2) 반소매 갈옷드레스의 외관평가 결과 .....	54
8 그레이딩 룰 및 룰값 작성 .....	57
V. 결론 및 제언 .....	66
참고문헌 .....	70
부록 I. 직접계측 문항 .....	76
부록 II. 갈옷 디자인 선호도 설문지 .....	77
<b>Abstract</b>	
감사의 글	



## 표 목차

<표 1> 의복구성학에서의 중년기 연령 구분 .....	11
<표 2> 3차원 인체 자료의 지수치 주성분 분석 결과 .....	17
<표 3> 드레스 기본 신체 부위 .....	19
<표 4> KS 의류치수규격에 의한 그레이딩 편차 .....	20
<표 5> 연구를 위한 치수체계 .....	20
<표 6> 50대 여성 직접계측 항목 .....	22
<표 7> 50대 여성 직접계측 치수와 50대 여성 표준치수 .....	22
<표 8> 피험자의 신체치수 .....	23
<표 9> 97-100-160(과체중) 참고치수 .....	25
<표 10> 실험衣 소재의 물리적 특징 .....	30
<표 11> 민소매 갈옷드레스 외관검사 항목 .....	31
<표 12> 반소매 갈옷드레스 외관검사 항목 .....	32
<표 13> BMI집단 간 젓가슴둘레 차이 .....	33
<표 14> 직접계측한 50대 여성의 인체치수 상관계수 .....	36
<표 15> 여자 40~59세 대표부위 변수 간 상관계수 .....	37
<표 16> 여자 40~59세 둘레관련 변수 간 상관계수 .....	38
<표 17> 여자 40~59세 두께-너비관련 변수 간 상관계수 .....	39
<표 18> 토르소 원형 패턴 적용치수 .....	43
<표 19> SN식, N식, K식 패턴제작 시 여유분 적용 값 .....	43
<표 20> 민소매 갈옷드레스 외관평가 결과 .....	52
<표 21> 반소매 갈옷드레스 외관평가 결과 .....	55
<표 22> 민소매 갈옷드레스 그레이딩 값 .....	59
<표 23> 반소매 갈옷드레스 그레이딩 값 .....	62

## 그림 목차

<그림 1> 계측치 변화추이 (출처:Size Korea) .....	14
<그림 2> 연구 구성도 .....	18
<그림 3> SN식 민소매 드레스 원형 제도법 .....	27
<그림 4> SN식 반소매 드레스 원형 제도법 .....	28
<그림 5> A-Line 보트 네크라인 민소매 갈옷드레스 도식화 .....	41
<그림 6> A-Line 보트 네크라인 반소매 갈옷드레스 도식화 .....	41
<그림 7> 민소매 갈옷드레스 비교원형 설계 .....	44
<그림 8> 반소매 갈옷드레스 비교원형 설계 .....	45
<그림 9> 민소매 갈옷드레스 비교원형과 연구원형 .....	47
<그림 10> 반소매 갈옷드레스 비교원형과 연구원형 .....	49
<그림 11> 민소매 갈옷드레스 비교원형과 연구원형 착의사진 .....	53
<그림 12> 반소매 갈옷드레스 비교원형과 연구원형 착의사진 .....	56
<그림 13> 민소매 갈옷드레스 그레이딩 룰 .....	58
<그림 14> 민소매 갈옷드레스 그레이딩 전개도 .....	60
<그림 15> 반소매 갈옷드레스 그레이딩 룰 .....	61
<그림 16> 반소매 갈옷드레스 그레이딩 전개도 .....	63
<그림 17> 민소매 갈옷드레스 연구원형 착의사진 .....	64
<그림 18> 반소매 갈옷드레스 연구원형 착의사진 .....	65

# I. 서론

##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생활 수준의 향상과 건강, 인체위생, 더 나아가 친환경성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의생활면에서 친환경 제품은 물론 건강, 쾌적 가공에 의한 섬유제품의 수요가 늘어나고 있다(이범훈 외, 2008). 이에 따라 친환경적이고 건강에 이로운 기능이 포함된 천연염색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가고 있고 패션산업에서도 환경친화적 의류상품에 대한 개발이 요구되고 있다. 특히 천연염색 산업은 천연염색 제품이 갖고 있는 감성, 친환경, 기능성 제품의 선호도가 증가함에 따라 새로운 시장기회를 맞을 것이라고 예측되고 있다(노의경, 유명남, 2006). 현재 자연에서 채취하는 꽃, 나무, 풀, 흙, 벌레, 조개 등에 포함된 천연물질을 이용한 천연염색은 꾸준히 연구 되고 있으며 대량화, 상업화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있다. 천연염색 중 하나인 감물염색의 장점은 자외선 차단 효과, 활동성, 위생성, 내구성, 통기성, 강연성, 방수성, 방충성, 항균성 등 기능적이고 위생적인 성능을 가지고 있고(한영숙, 2005) 감물염색으로 만든 제품인 갈옷은 친환경 제품인 제주도의 향토성 짙은 문화상품이며 상업화와 시장 확대에 따라 제주지역의 중요한 패션문화상품으로 인식되어 '전통문화의 계승', '제주관광 여행 기념' 등과 관련한 다양한 상징적·사회적 혜택들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되어 지고 있다(홍희숙, 2001). 이러한 갈옷은 정부의 지원 아래 널리 상품화되고 있는 중이지만 현재까지 전국적으로 갈옷의 인지도와 선호도는 많이 낮은 상태이다.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는 갈옷의 문제점 중 가장 큰 문제점은 신체적합성이 떨어지는 것과 갈옷제작업체 각각의 의류제품 치수 체계 및 호칭이 제작업체별로 상이하고, 동일한 호칭이라도 제작업체에 따라 적용하는 인체치수가 달라 소비자의 불편을 야기하며 기성 갈옷 제작 시 주로 통계적 수치를 기준 값으로 패턴의 치수를 정하여 체형을 고려하지 않고, 정확성이 높은 입체적인 데이터를 사

용하는 경우는 거의 없는 실정이며 몇몇의 영세업체의 경우 유행하고 있는 잘못된 디자인이 있다면 그 옷을 구매한 후 옷을 뜯어 패턴화 시키는 경우가 많으며 체계적인 패턴교육을 받은 모델리스트들이 많이 부족한 실정이다. 또한 여성의 신체는 연령증가에 따라 변화하는데, 변화된 신체에 맞는 의복이 절실히 요구된다. 하지만 기성복 업체에서는 대부분 젊은 여성을 기준으로 의복 설계가 이루어져 있고, 젊은 여성의 의복 패턴을 중심으로 의복이 제작되어지고 있는 실정이라 다양한 체형을 가진 중년여성의 의복 착용시 신체에 적합하지 않음을 느끼게 된다. 즉 젊은 여성을 위한 원형을 치수만 늘려서 사용하는 등 중년여성의 신체적 특징을 원형에 반영시키지 않은 결과인 것이다(박순지, 1994).

체형은 연령층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나는데 특히 중년기 여성들은 결혼 후 임신과 출산으로 인해 체형과 신체의 비례가 변화(손희순, 1989)한다. 중년기의 신체변화는 키를 비롯한 높이 항목이 감소하고 신진대사 기능의 감소로 둘레항목이 증가하면서 허리부위가 비대해지고 복부 돌출현상이 심해지며, 위팔과 목이 굵어지며 등에 군살이 붙고 유방과 엉덩이가 쳐지게 된다(김순자, 1992) 이러한 체형변화에 따른 비만증세나 몸매의 불균형은 중년기 여성들에게 의복에 대한 문제를 불러 일으키며 의복이 신체에 잘 맞지 않는 주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그러므로 체형변화가 심하여 다양한 체형이 분포되는 중년 여성을 위한 기성복 설계 시 연령과 실루엣에 따라 나타나는 체형특징과 만족도를 고려하여 치수 및 동작적합성을 높여야 할 것이다(권수애 외, 2010).

지금까지의 갈옷에 대한 연구 중 소재에 대한 연구는 많이 진행되어왔으나 패턴이나 그레이딩에 관한 연구는 미흡한 실정이고 원피스 드레스 원형 연구는 드롭치를 기준으로 체형을 나누어 연구한 논문들이 대부분이며 실제 소비자들이 사용하고 있는 의류 치수 규격과 BMI를 기준으로 체형을 분류하여 연구한 원피스 드레스 패턴 논문이 미흡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35세~59세의 중년여성 중 갈옷드레스의 선호도가 높고 체형변화가 가장 심한 50대 중년여성을 대상으로 한국산업규격KS K2004(안)에 제시된 피트성이 필요한 상의의 신체치수 호칭 표기와 그레이딩편차를 적용하여 50대 중년여성체형에 신체적합성이 높은 기성복 갈옷 드레스 원형을 제작하여 제주 도내 업체에 보급함으로써 보다 체계적이고 맞춤새가 좋은 중년여성용 갈

옷 드레스 제작에 기여하고자 한다.

## 2. 연구 내용

본 연구는 다양한 체형을 가지고 있는 50대 중년여성의 체형을 BMI를 기준으로 3가지 체형으로 분류하여 사이즈를 설정하였다. 그 중 중간 사이즈로 갈옷 드레스 비교원형을 제작 후 수정 및 보완하여 연구원형을 제시하고 그레이딩하였다. 본 연구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50대 중년여성의 체형을 BMI에 따라 정상체형, 과체중체형, 중도비만체형으로 분류한다.

둘째, 중년여성의 표준치수와 본 연구의 직접계측 치수를 기준으로 3가지 체형의 기본 치수를 정하였다.

셋째, Size Korea 5차 한국인 인체치수조사를 통하여 제시한 50대 중년여성의 인체 측정치와 본 연구의 직접계측 치수를 바탕으로 본 연구의 중간체형인 과체중체형 치수를 설정하여 갈옷 드레스 원형을 설계한다.

넷째, 교육용 패턴 중 드레스의 원형제작에 기본이 되는 토르소 패턴을 검토·활용하여 중간 사이즈인 과체중체형의 드레스의 비교원형을 설계한다.

다섯째, 소매의 유무에 따른 드레스의 비교원형을 수정·보완하여 연구원형을 설계한다.

여섯째, 드레스 비교원형과 연구원형 각각에 대한 중간사이즈 체형의 착의 평가를 실시하여 차이를 검증하였으며 개선된 점을 확인함으로써 중년여성의 신체 적합성이 높은 드레스 원형을 제시하고자 한다. 아울러 개발된 연구원형에 그레이딩 룰 값을 적용하여 3개 체형에 대해 그레이딩도 수행하여 업체에 제공함으로써 지역사회 상품 활성화에도 기여하고자 한다.

## Ⅱ. 이론적 배경

### 1. 갈옷의 유래와 전망

갈옷은 제주도의 민속복식으로 농업이나 어업, 목축업에 종사하는 제주도 서민층의 작업복이자 일상복으로 최근까지 계속하여 입혀져 온 제주도를 상징하는 옷이다.

현재 제주도의 갈옷은 면이나 마직물 등을 풋감즙으로 주무른 후 햇볕에 말리고 일주일에서 열흘정도 물을 축여 주면서 햇빛에 말려 발색시킨 원단으로 만든 의복의 명칭이다. 언제부터 입혀져 왔는지에 대한 정설은 없고 몇 가지 견해가 제시되어 있다. 직물에 감물을 염색하여 처음 사용한 것은 약 700여 년 전의 일로서 한 어부가 질긴 낚시줄을 만들기 위해 풋감 즙을 이용하여 줄을 염색하였다고 전해지고 있고(전성기, 1969), 뽀뽀하고 질긴 줄을 만들기 위해 풋감과 썩힌 돼지나 소의 피를 이용한 것이 시초라고 할 수 있다(고광민, 1985). 350여 년 전의 시신을 감쌌던 면직물에서도 풋감 즙으로 염색한 흔적이 남아있는 것으로 보아 350여 년 전에 이미 한반도의 남부지역에 널리 보급되어 있었음을 알 수 있다(이정숙, 1982). 그런데 갈옷이란 명칭이 가죽옷에서 온 것이라고 주장이 있다. 피의(皮衣)문화권에 속하는 제주도에서 주호시대(제주의 옛 명칭. 제주의 명칭은 도이(島夷), 동영주(東瀛州), 주호(州胡), 탐모라(耽牟羅), 섭라(涉羅), 탁라(托羅), 탐라(耽羅), 제주 등으로 시대에 따라 다르게 불렸다.) 이래로 개나 돼지의 가죽으로 옷을 만들어서 입다가 한반도의 농경문화권으로 통합된 후에 변용되어 직물로 만든 옷에 감물을 들여 입게 된 것이라고 한다(김인호, 1990). 지금처럼 감물을 들여 입게 된 시기는 350여 년 전인 이조시대 이후라고 볼 수 있다.

제주 가옥마다 예전에는 감나무가 쉽게 눈에 띄었는데, 다른지방의 감과는 달리 직경 3~4cm 정도로 작고 씨가 많기 때문에 식용보다는 주로 물을 들일 때 사용하였다. 풋감을 이용한 염색의 원리는 풋감 즙에 들어 있는 짧은 맛의 탄닌

성분이 섬유와 결합하여 응고되면서 섬유를 뽀뽀하게 만들며 햇빛에 노출시키면 점진적으로 산화, 중합되면서 짙은 갈색으로 변하는 것이다.

갈옷의 종류에는 갈적삼, 갈중이, 갈조끼 등이 있다. 갈적삼은 여름철에 입었던 옷으로 ‘땀바데’라고도 하는 데, 땀이 줄줄 흐를 때 입었던 옷이 라서 붙여진 것으로 보인다. 안을 놓지 않고 홑으로 만들어 입었으므로 ‘베’나 ‘모시’의 까칠한 면이 살갓에 닿도록 해 입었다. 갈중이는 갈점방이, 갈정뱅이, 갈좁방이, 갈좁뱅이, 갈베중이라고도 한다. 홑바지인 ‘중의’와 구분하였으며 아랫도리에 입는 옷이다. 치마에 감물을 들인 것으로 ‘갈치마’라고 하여 구분하였다. 종류는 깎치메(들렁치메, 풀치메라고도 한다. 허리에 주름을 많이 준 치마이다.), 짧은 통치마, 통치마(일반적인 통치마는 갈옷을 입지 않을 때 집에서 입었던 치마를 말한다. 허리의 길이는 깎치메와 같으며, 길이는 무릎 아래까지 내려오도록 하였다. 이 밖에 치마허리 통치마는 치마허리로 젓가슴을 동여매던 것을 어깨에 걸치는 것으로 고친 것도 있었다.)가 있다. 조끼에 감물을 들인 것을 ‘갈조끼’라고 하였다. 계절을 가리지 않고 남자들이 저고리 위에 입었던 덧옷의 하나였으나 지금은 남자, 여자 가리지 않고 입는다.

갈옷은 감물을 들인 것이므로 더러움이 덜 타며 세탁한 후 쉽게 변형되지 않고 방부제역할을 하여 땀 묻은 옷을 두어도 썩지 않고 냄새가 나지 않으며 통기성이 좋아 여름에 시원할 뿐만 아니라, 발일을 해도 물방울이나 오물이 쉽게 붙지 않고 곧 떨어지므로 위생적이다.

이러한 경제적이고 위생적이며 편안함과 친환경적인 제주의 관광상품인 갈옷의 개발은 계속 되어지고 있다. 그리고 현재 감물을 들인 천으로 모자, 손가방, 방석 등 다양한 관광상품이 나오고 있는 실정이고 세탁, 색바랜, 디자인, 치수 등의 갈옷의 단점을 보완하여 나간다면 제주도의 관광상품에도 큰 역할을 하면서 더 나아가 제주 갈옷이 전국화, 글로벌화로 발전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갈옷연구로는 고부자(1971)의 “제주도 복식의 민속학적 연구”와 김과옥, 고부자(1973)의 “의생활 -농부복(시(柿)하의류)-”는 전래되는 갈옷의 제작방법과 종류에 대하여 조사하였다. 현혜경(1976)의 “제주도 복식에 관한 연구”는 실물중심으로 형태 및 치수를 측정하고 제도법 및 바느질법에 대하여 조사하였다. 김의숙(1991)의 “제주도 목자복 고찰”은 갈옷을 목자복의 일종으로 다루어 갈적삼과 갈

중이를 실측하여 제시하였다. 부애진(1990)의 “제주지방 민속복인 활동복의 제작 방법에 대한 연구 -갈옷과 해너복 중심으로-”에서는 갈적삼과 갈중이, 해너복인 물소중이의 제작방법 및 봉제방법을 조사하였다. 박순자, 박덕자(1994)의 “갈옷의 제작방법과 디자인 개발에 관한 연구”는 갈옷의 일상복과 외출복을 고안하여 제시하였다.

## 2. 천연염색의 정의와 전망

천연염색은 자연에서 재료를 구해서 인위적인 합성의 과정을 거치지 않고 염료를 추출하여 염색하는 방법으로 인공적으로 염료를 합성하는 화학염색과 대치되는 용어이고 감물염색도 여기에 포함된다.

천연염색의 염료로는 식물성, 동물성, 광물성 염료로 분류한다. 식물의 뿌리, 줄기, 잎, 꽃, 열매 등의 식물성 염료, 오배자, 코치닐(cochineal), 락(lac)과 같이 동물의 몸이나 그 분비물로부터 색소를 얻을 수 있는 동물성 염료와 황토나 머드와 같이 다양한 색체를 갖고 있는 흙과 돌 속에 함유된 금속산화물, 즉 무기 안료의 착색을 이용한 광물성 염료 등이 있다.

천연염색의 식물성 염료에 관한 선행연구는 안경조, 김정희(2001)의 “홍화를 이용한 매염 및 가공처리 직물의 염색성에 관한 연구”, 주영주(2002)의 “꼭두서니 염색성에 관한연구”, 신윤숙, 오윤정(2002)의 “로즈마리 추출물을 이용한 면의 염색”김재훈, 유혜자(2003)의 “고사리잎 추출액을 이용한 견직물의 염색성연구”, 박영희, 오희자(2003) “국화 추출액을 이용한 염색직물의 염색성 및 향균성”, 구신혜(2005)의 “허브 추출액을 이용한 직물의 염색성 및 향균성”, 박영희(2005)의 “캐모마일 추출액 염색직물의 염색성 및 향균성”, 손원교, 신정숙(2006)의 “참소리쟁이의 특성을 이용한 염색성 연구”등 자연에서 나오는 모든 식물을 활용하기위해 꾸준히 연구 되고 있고, 천연염색의 마케팅 관련 선행연구는 남미우, 정재만(2007)의 “의복 추구혜택에 따른 소비자 유형별 천연염색 의류제품의 소비행동에 관한 연구”, 조아영(2007)의 “천연염색 의류제품의 구매실태 조사 연구 -보유 현

황과 착용이미지를 중심으로-”, 이미숙, 정경희(2010)의 “천연염색전문 인터넷 쇼핑몰 현황 및 상품분석”, 홍희숙, 김기억(2010)의 “천연염색 제품 구매 고객의 매체 프로그램 및 정보원 이용 특성”등 다양한 관점에서 천연염색에 관한 연구가 이루어 지고 있다.

세계적으로 건강과 환경을 중시하는 추세이고 이러한 환경과 건강에 대한 관심의 증가추세에 따라 천연염색과 염료에 대한 비중도 크게 높아져 자연 친화적인 점과 건강 기능성에 관한 연구들이 계속하여 이루어지고 있으며 소비자들의 건강 및 환경친화성유제품을 선호하는 경향이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어 국내 관련업계가 천연염료를 이용한 염색가공기술의 발달을 가져오면 향후 국가 수출의 발달에도 큰 도움을 줄 것으로 사료된다.

### 3. 체형변화에 따른 원피스 드레스의 선행연구

원피스 드레스는 길과 스커트가 하나로 이어진 옷을 칭하며, 의복의 종류 중 역사가 가장 오래된 옷이며 실루엣 별로 분류하면 어깨, 진동둘레에 절개선을 넣은 프린세스(princess)형, 웨이스트라인의 위치가 밑으로 내려진 로웨이스트(low waist)형, 웨이스트라인이 위치가 위로 올라간 하이웨이스트(high waist)형, 웨이스트에 절개선이 없는 시프트(shift)형 등이 있다.

체형에 관한 선행연구인 함상옥, 심정희(1997)의 “중년여성의 체형별 원피스 드레스원형 연구”는 Röhrer지수에 의해 마른체형, 표준체형, 뚱뚱한체형으로 분류하고 체형의 특성을 파악하여 연구원형을 제작하였고 관능검사와 기능성검사를 통해 중년여성의 신체적합한 원피스 원형을 제시하였다. 박주희(2004)는 “20대 여성의 체형 변화에 따른 원피스 드레스 원형연구”를 통하여 체형 특성 및 동작 적합성이 고려된 과학적인 원형설계를 위해 20대 여성을 대상으로 원피스 드레스 형태 적합성에 큰 비중을 차지하는 둘레항목을 기준으로 드롭치(Drop Value)에 따라 체형을 구분하고, 드롭치가 다른 각각의 체형에 적합한 원피스 드레스 원형을 제작하였다. 김숙정(2005)의 “30대 여성의 신체 특성과 원피스 드레스 원

형에 관한 연구”에서는 30대 여성의 신체 특성상 원피스 제도 시 기본둘레 부위가 모두 중요한 항목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을 참고하여 실용적인 원피스 드레스의 원형 제도 법을 제시 하였다. 그 외의 특수 체형에 관한 선행 연구로 최광희(1994)의 “임산부의 체형 변화에 따른 원피스 드레스의 기본 원형 연구”가 있다.

#### 4. 여성의 연령에 따른 체형변화 및 특징

체형은 개인의 형태적 구조를 결정하는 것으로 사람이 서 있을 때 최외표의 윤곽으로 유전적·체질적인 소질과 영양, 질병 등 환경의 영향을 받아 형성된 인체의 외형으로 정의된다. 체형은 성, 연령, 인종, 지역, 직업에 따라 다르며 시대와 문화에 따라 변화하고, 미의 기준이나 이상적인 비례도 변하고 같은 인종이라도 개인차가 많고 한 사람의 왼쪽과 오른쪽도 서로 대칭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인체의 변화는 대부분 10대 후반에서 20대 초반에 성장이 거의 정지하게 되며 그 후의 체형변화는 성, 연령, 신체 부위에 따라 개인차가 심해지며 연령의 증가에 따라 다양하고 복잡한 체형으로 변화 되어진다(김지민, 2003).

##### 1) 성장기의 신체적 특징

아동(출생에서 취학전, 5세까지)의 키 발달은 유아기 동안은 증가율이 저조하다가, 학령기(6~11세)에 이르러 급속한 성장을 보여 준다. 학령기 후기의 아동은 배를 앞으로 내밀고 견갑골과 엉덩이를 뒤로 빼고 있는 학령 전기 아동의 체형에서 점차 가슴과 등이 두꺼워지는 성인체형으로 변화하는 시기이고 여아는 9세 때부터 남아에 비해 더 성장한다(김혜경 외, 1997). 청소년기(12~17세)에는 여학생의 가슴부위의 발달에 따른 신체지수의 변화가 현저함을 알 수 있다. 여학생은 16세 전후까지 키를 비롯한 모든 신체부위에서 꾸준한 성장을 한다. 몸매의 굴곡을 결정짓는 엉덩이 둘레, 젖가슴둘레, 허리둘레 중 엉덩이둘레가 가장 많이 성장하며(정화연, 2004) 엉덩이둘레와 젖가슴둘레는 만10~12세경에 높은 성장량을

보인다. 이 시기에는 사춘기적 성장을 하는 시기이므로 가슴을 비롯한 상반신의 발달이 현저하며 굴곡이 없고 뚝뚝한 아동의 체형에서 굴곡이 뚜렷한 성인의 체형으로 되어 가고 있다(서추연, 1993).

## 2) 20대 신체적 특징

성장정지 시기는 연구마다 조금씩 다르게 보고되고 있으나 한국인은 만 18세 이후에 체격의 변화없이 성적 성숙을 이루게 된다. 구간부를 중심으로 피하지방이 침착하기 쉬워 체표면이 완만한 커브형이 되어 부드러운 인체곡선을 이루게 된다. 일반적으로 피하지방의 침착은 연령과 함께 증가되는 데, 사춘기 이후의 여성은 체간이 사지에 비하여 집중적으로 증가되고 유방과 골반이 발달하여 횡경이 넓어지고 골반경사도가 커지는 특징을 보인다(권숙희, 1994). 유방은 가장 둥근 반구형에 도달하는 시기이다(손희순, 이성민, 1996). 전반적으로 높이 항목이 크고 상대적으로 마른 체형이며 어깨가 넓고 치졌으며 허리선을 중심으로 상반신은 짧고 하반신이 길며 장만지가 굵다(정명숙, 1994). 상반신 비만인자가 작고 인체측정의 기준선을 중심으로 한 전면, 중간, 후면 두께 인자도 작지만 높이와 길이 인자가 크다(이형숙, 2000). 20대 전반 여성은 바른체형 또는 쫓힌 체형이라고 할 수 있다(정명숙, 1994). 그리고 다른 연령층에 비해 체형의 다양성이 가장 적게 나타난다(김지민, 2003).

## 3) 30대 신체적 특징

20대에서 30대로 연령이 높아질수록 키는 감소하고 몸무게는 증가하는 경향을 보인다. 그 이유는 임신, 출산, 수유 등으로 인해 자연스럽게 체지방이 증가되면서 몸무게 역시 자연스럽게 증가하는 현상이 나타나며, 체지방율과 신체지수는 35세 이후 크게 변화됨을 알 수 있다(전정혜, 성수관, 2004). 신진대사의 감소로 인한 비만화로 가슴, 허리, 배 등 들레부위의 치수가 증가될 뿐만 아니라 신체비례의 균형도 달라지게 된다(손희순, 1989). 30대 후반은 30대 전반과는 매우 다른 양상을 보여 크기의 계속적인 증가가 형태인자에 영향을 미치기 시작하는 시기라고 하였다(최유경, 1997). 그러나 최근 날씬한 몸매를 선호하는 사회현상으로 자기관리와 여성의 사회활동 확대, 30대 기혼여성의 경우도 저출산으로 인하여

30대 여성의 신체적 변화는 크게 두드러지지 않는 경향을 보이기도 한다. 대체로 30대 여성의 체형은 여러 가지 신체 변화의 과정을 겪게 되어 신체 특징은 매우 다양하고 차이가 두드러지게 나타난다고 하겠다(조신형, 2006).

#### 4) 40대 신체적 특징

키를 비롯한 높이 항목이 감소하는 반면, 너비, 두께, 둘레항목 및 몸무게가 증가하고 가슴이 처지며 상완부분이 두꺼워지고 어깨가 완만하게 되어 몸통이 원통형의 실루엣으로 변한다. 유방도 젖분비 단계의 풍만함을 잃고 지방의 축적과 함께 처지는 시기에 있다. 40대 여성은 높이 항목은 감소하고 너비, 두께, 둘레항목이 증가하며 허리와 가슴을 중심으로 증가되어 몸통부위의 비만화 현상이 심화되고 원통형의 실루엣으로 변해감을 알 수 있다. 연령이 증가할수록 젖꼭지점의 위치가 점차 낮아지며 등면부위에 피하지방의 침착현상이 나타난다(이성민, 손희순, 1996). 하반신은 길이가 짧고 허리에서 대퇴부위까지는 가장 굵지만 무릎과 장딴지부위는 가장 가늘어지는 시기이다(정명숙, 1994).

#### 5) 50대 신체적 특징

가장 비만화 경향이 두드러진 연령대로 어깨너비 항목에서 가장 크게 나타나고 등과 어깨, 목둘레, 겨드랑이 너비와 윗팔 부위 등에 지방 침착이 가장 많이 일어난다. 가슴이 처지고 유혹도 가장 많이 벌어진다. 50대 후반으로 가면서 가슴과 엉덩이가 점점 더 처지고 복부비만이 가장 두드러진다(박순아, 2007). 하반신은 복부비만으로 인해 가슴둘레나 엉덩이둘레에 비해 허리둘레가 커져 미혼 여성보다 허리너비와 가슴너비, 허리너비와 엉덩이너비 차이가 감소하고 허리굴곡이 줄어들어 점차 H자형 또는 원통형의 뚱뚱한 체형으로 변화된다(손희순, 1989).

#### 6) 60대 신체적 특징

신장 및 높이항목은 감소하고 등뼈의 굴곡에 따른 등의 만곡도가 증가하고 (김영숙, 1993) 허리가 굽어져 허리선이 없어지고, 몸의 지방분이 아랫부분으로 옮겨져 배와 엉덩이부분의 둘레항목 치수가 커진다(김명옥, 1984). 가슴과 어깨와 엉

덩이가 처지고 사지부는 가늘어지며 피하지방의 침착위치도 개인에 따라 다양해져서 다양한 체형 특성을 보인다(김경화, 1994).

고찰결과 인체는 대부분 10대 후반에서 20대 초반에 성장이 거의 정지하게 된다. 그 이후 체형은 개인차에 따라 달라지며 연령의 증가에 따라 다양하고 복잡한 체형으로 변화되어 진다.

## 5. 중년여성의 연령구분 및 신체적 특징

### 1) 중년여성의 연령구분

중년여성의 연령 구분은 개인마다 차이가 있어 언제부터 언제까지라고 정확히 말하기는 어렵다. 연구자의 학문분야 및 구분 기준에 따라 중년여성의 연령 기준 범위가 달라진다. <표 1>은 의복구성학에서의 중년기 연령구분 연구를 정리한 표이다. 이와 같이 중년여성의 연령 범위를 선행 연구에서 근거하여 살펴본 결과 중년기 연령층을 35세에서 59세 정도까지 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1> 의복구성학에서의 중년기 연령 구분**

연구자	연구 년도	중년기 범위
손희순	1989	35~54세
김순자	1995	35~54세
이진경	1995	35~54세
심정희, 함옥상	1996	40~55세
권숙희	1998	35~54세 (35~44세, 45~54세로 중년전기, 후기로 나눔)
정혜락, 함옥상	1999	35~59세
심정희, 함옥상	2001	35~59세 (35~39세, 40~49세, 50~59세로 중년전기, 중기, 후기로 나눔)
김경희	2007	35~59세 (35~39세, 40~49세, 50~59세로 중년전기, 중기, 후기로 나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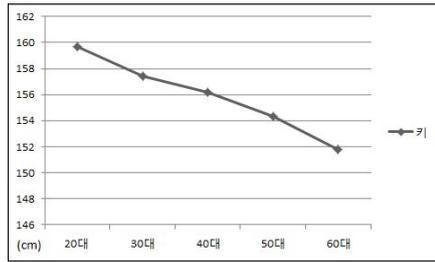
## 2) 중년여성의 신체적 특징

중년여성은 결혼과 출산, 호르몬의 변화로 신체의 비례가 불균형적으로 변화한다. 신장을 포함한 높이부위와 길이부위는 감소하고 너비·두께·둘레부위는 두꺼워지고 신진대사의 기능이 감소되면서 체중이 증가하고 신체의 비율이 변하게 된다(이진경, 1995). 허리와 가슴·배 및 진동과 상완 등의 둘레항목이 증가하고 위팔이 굵어지며 가슴이 늘어지거나 엉덩이가 처지는 체형변화가 나타난다. 이러한 현상은 45세를 전·후로 중년여성의 특징인 비만현상이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난다(심정희, 함옥상, 199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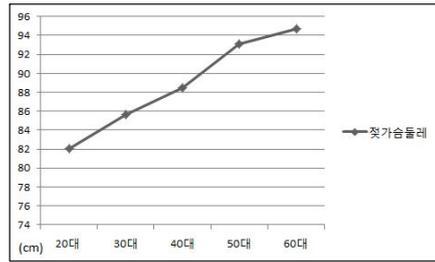
중년여성의 체형 특징에 대한 선행 연구를 살펴보면, 송미령(1976)은 가슴둘레, 허리둘레, 상완둘레 부위의 체형변화가 뚜렷한 부위로 나타났고 연령이 증가 할수록 둘레항목이 증가 하였다. 둘레항목 중에서 가슴둘레 증가폭보다 엉덩이둘레 증가폭이 더 컸으며 배둘레의 증가로 엉덩이와 허리둘레 차이가 감소하는 체형으로 변한다고 하였다. 조길수, 이순원(1980)은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여성의 체형은 신체구간부가 커지고 두꺼워지며 허리의 굴곡이 적어지고 상완진동부분의 치수가 커졌다. 손희순(1989)에 의하면 중년기 여성은 연령이 높을수록 신장을 비롯한 높이부위는 작은 반면 구간부는 두꺼우며 특히 복부가 돌출되고 허리부위가 비대해져 허리굴곡이 완만해지며 진동 및 상완과 손목이 굵고 유방이 처져 전반적으로 짧고, 굵고, 둥근 체형으로 변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하였다. 김순자(1992)는 중년여성에게서 비만화 현상이 나타나며 가슴이 처지고 너비증가보다 두께증가가 커진다고 하였다. 이진경(1995) 높이항목은 감소하고 엉덩이가 처지고 복부의 돌출로 동하부의 비만화가 현저하여 수평크기 항목에서 증가추세를 보이며 허리와 엉덩이의 치수차가 감소하여 점차 측면 및 후면 굴곡이 밋밋한 체형으로 변화된다. 권숙희(1998)의 연구에서는 어깨 형태의 변화로 뒤 어깨끝점 길이는 감소하고 앞어깨 끝점사이 길이는 증가 하였고 엉덩이가 처지고 측면 두께가 두꺼웠으며 가슴부위, 배, 등, 엉덩이 부위 등이 살찐 형태로 나타났다. 정혜락, 함옥상(1999)은 젊은층에 비해 구간부가 크고 허리의 굴곡이 적어지며 두께가 두꺼워지는 경향이 나타나며, 생리적으로 인체의 지방질이 허리와 엉덩이에 축적됨에 따라 신체윤곽이 한층 굵고 짧아 보이고 연령이 증가 할수록 두꺼운 체형이 되면서 상대적으로 목은 가늘게 보이게 된다. 김경희(2007)는 연령이 증

가할수록 높이가 작아지는 경향을 보였으며, 너비나 두께, 둘레 항목은 중년 후기가 전기나 중기에 비하여 두꺼운 것으로 나타났다고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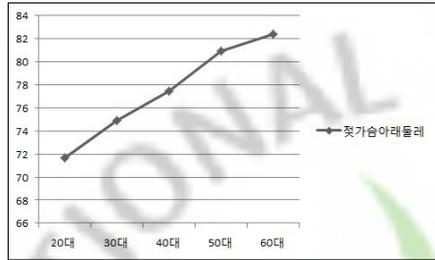
위와 같이 선행된 연구들을 바탕으로 정리하여 보면 중년여성의 체형은 높이가 감소하고 너비나 두께, 둘레 항목은 증가하고 엉덩이와 유방은 처지고 허리와 엉덩이의 치수차이가 감소하여 점차 측면 및 후면의 굴곡이 밋밋한 체형으로 변화되며 측면체형 분석결과 숙인체형으로 변화되어 갔다. 최유경(1997)은 성인 여성은 젊었을 때와 다른 체형의 실루엣으로 바뀌는 데, 특히 45세를 기점으로 하여 체형변이가 심하게 나타나고 키를 비롯한 높이 항목은 감소하고 둘레항목이 증가하면서 어깨에서 엉덩이에 이르는 옆선 실루엣의 굴곡이 밋밋한 H형 체형으로 변하다고 하였으나 김경희(2007)의 연구결과 중년 여성의 체형변화는 이전에 비해 늦춰졌고 이는 최근 건강과 신체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여 자기관리에 노력을 기울이는 중년층이 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그림1>은 Size Korea(2004)의 여성의 연령대별 표준체형 치수 자료를 분석한 것으로 신체부위별 연령별 변화추이를 그래프로 나타낸 것이다. 키, 젖가슴둘레, 젖가슴아래둘레, 등길이, 목 밑둘레, 겨드랑둘레 부위를 제시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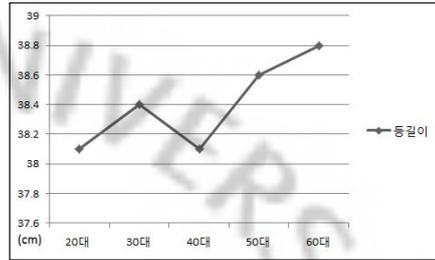
(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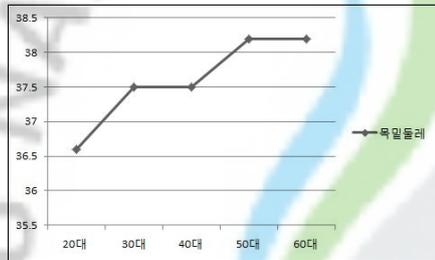
(젓가슴둘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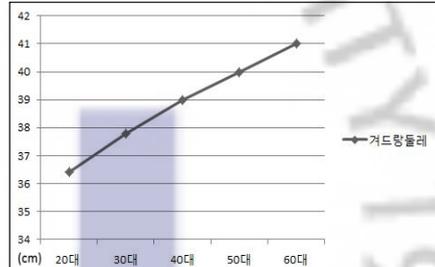
(젓가슴아래둘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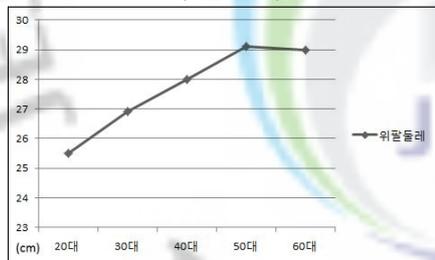
(등길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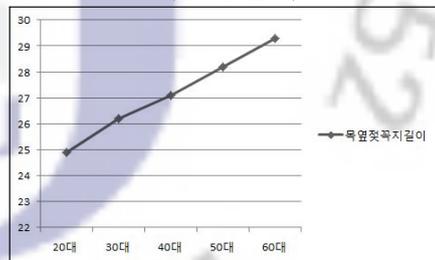
(목밑둘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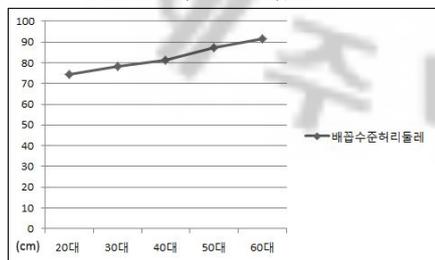
(겨드랑둘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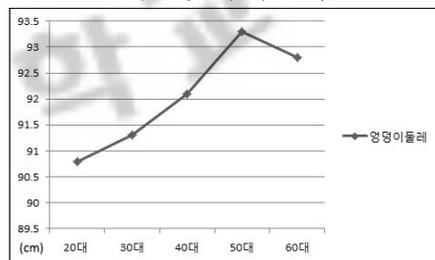
(위팔둘레)



(목옆젓꼭지길이)



(배꼽수준허리둘레)



(엉덩이둘레)

<그림 1> 계측치 변화추이 (출처: Size Korea)

## 6. 비만-수척 요소에 의한 체형분류

의류학 분야 연구에서 비만 판정도구로 많이 사용되고 있는 체형분류에는 Röhrer지수에 의한 체형분류, Vervaeck지수에 의한 체형분류, BMI지수에 의한 비만의 평가, Sheldon에 의한 체형분류 등이 있다.

Röhrer지수는 1908년 Röhere가 발표한 지수로서 신체충실지수라고도 하는데, 키를 한변으로 한 입방체에 대한 몸무게의 비로 나타내고, 골격, 근육, 내장 제거 관, 조직 등의 발육 상태를 나타내며, 영양학 분야에서 학동기의 영양 상태를 나타내는 신체충실지수로서 많이 사용된다(이종현, 전은정, 1998). 이정원외, (2007)은 156 이상은 고도비만, 156-140은 비만, 140-110은 정상, 109-92는 마름, 92이하는 매우 마름으로 판정하였고 신장 110-129cm에서는 180이상, 130-149cm 이상에서는 170 이상, 150cm이상에서는 160 이상을 비만으로 판정 하였고 장유경외, (2006)은 116 이상을 심한 수척, 117-125를 중등도 수척, 126-143을 정상 범위, 144-151을 경도 비만, 152 이상을 고도 비만이라고 하였다. 현재 비만선정기준은 모호한 상태이다(이경화, 2010).

Vervaeck지수는 1920년에 Vervaeck가 제창한 Constitution index(체질지수, 내적 구조지수)로서 키, 몸무게, 가슴둘레의 3요소의 조합으로 되어 있는 지수이다(이종현, 전은정, 1998). 비체중과 비흉위를 더한 값으로 비만보다는 체격을 의미하는 지수라 할 수 있다.

BMI에 의한 비만의 평가는 신체를 구성하는 조직 중에서 지방이 차지하는 비율로 신체의 상대적인 비만을 평가할 수 있으며, 영양상태나 건강에 관련된 체력의 평가 등에도 최근에 널리 활용되고 있다.

Sheldon에 의한 체형분류는 Kretschmer와 같이 인간의 형태적인 차이를 분류하는 방법이다. Sheldon은 인체의 기관이 내·중·외 3종류의 배엽에서 발생하였다는 점을 주목하여 체형을 내배엽형, 중배엽형, 외배엽형으로 분류하였다. 내배엽형(endomorphy)은 소화기의 발달은 좋으나 근육, 골격의 발달은 좋지 않으며 피하지방이 침착되기 쉬운 경향이 있고 피하지방이 복부에 많이 모여 있고 손목이나 발목은 평균치에 가까울 정도로 감소되어 있다. 중배엽형(mesomorphy)은 근

육질의 경향이 강하고 골격의 발달도 좋으며, 역세고 튼튼한 느낌을 주며 상반신이 하반신을 압도하는 체형이다. 외배엽형(ectomorphy)은 피부, 신경계의 발달이 좋은 여원형으로 가냘퍼 보이고 근육과 피하지방은 골격에 극히 조금 남아 있는 정도이고, 골반이 체간보다 더 크다(심부자, 1999). Sheldon에 의한 체형분류법은 원래 남자를 대상으로 개발되었던 것이나 이후 여자에게도 적용되었다(정명숙, 1994).

의류학 분야에서 비만-수척 요소에 의한 체형 분류 선행 연구들을 살펴보면 주로 Röhrer지수와 BMI지수가 비만과 수척체형의 중요한 기준으로 사용되고 있다. Röhere지수와 BMI지수는 일반적으로 체형을 파악할 때 가장 먼저 인식되고 있지만, 체형의 형태적 특성에 관계없이 키와 몸무게가 같은 사람들은 같은 유형에 포함시키고 있어 의복구성 분야보다는 실제체형과 인지체형을 비교 연구하거나, 체형에 따른 디자인 선호도를 연구할 때 많이 쓰이고 있다는 선행연구(강명아, 2008) 결과가 있지만 Size Korea(2007) “한국인 성인 여성별 3차원 인체 형상 라이브러리 기반 구축” 최종보고서에서 3차원 인체 자료의 지수치 주성분 결과 <표 2>과 같이 BMI가 둘째, 두께 항목과 함께 같은 요인으로 분석되었고 BMI 지수만으로 체형의 실루엣을 관찰할 수 있다고 하였다.

〈표 2〉 3차원 인체자료의 지수치 주성분 분석 결과

주성분	항 목	요인부하량	고유치	변량기여율(%)	누적기여율(%)
1요인 (16항목)	엉덩이둘레/키	0.937	10.4	32.4	32.4
	엉덩이너비/키	0.887			
	BMI	0.873			
	넙다리둘레/키	0.831			
	엉덩이두께/키	0.803			
	가슴둘레/키	0.791			
	허리둘레/키	0.784			
	허리너비/키	0.783			
	가슴너비/키	0.768			
	젓가슴너비/키	0.760			
	젓가슴둘레/키	0.755			
	허리두께/키	0.725			
	편위팔둘레/키	0.722			
	젓가슴두께/키	0.697			
	가슴두께/키	0.641			
	어깨너비/키	0.448			
2요인 (7항목)	불기고랑높이/키	0.873	4.9	15.2	47.6
	엉덩이높이/키	0.865			
	살높이/키	0.857			
	다리별린살높이/키	0.856			
	무릎높이/키	0.707			
	팔길이/키	0.641			
허리높이/키	0.607				
3요인 (2항목)	상드롭	-0.915	4.2	13.2	60.8
	하드롭	-0.860			
4요인 (4항목)	가슴편평률	-0.832	3.7	12.0	72.8
	젓가슴편평률	-0.768			
	허리편평률	-0.677			
	엉덩이편평률	-0.572			
5요인 (3항목)	어깨높이/키	0.833	2.0	6.2	79.0
	겨드랑높이/키	0.786			
	젓가슴높이/키	0.468			

출처: Size Korea(2007)

### Ⅲ. 연구방법 및 절차

#### 1. 연구의 구성도

본 연구의 연구절차방법을 도식화하면 다음<그림 2>와 같다.



<그림 2> 연구 구성도

본 연구는 체형을 BMI 지수로 3가지 체형으로 나누었는데, 이는 Size Korea 2007 한국인 성인 여성 체형별 3차원 인체 형상 라이브러리 기반구축(2007)의 3차원 자료의 지수치 주성분 분석결과와 Size Korea 2004 인체치수통계의 40~59세 여자 상관관계수를 기초로 하였다.

한국산업규격 KS K2004(안)에 제시된 KS규격에 나와 있는 의류종류별 신체부위 및 그레이딩 편차를 적용하였고 심정희, 함옥상(2001)의 연구를 토대로 세 집단으로 분류하여 연구한 김경희(2007)의 연구에서 중년 후기가 전기나 중기에 비하여 너비나 두께, 둘레 항목이 두꺼워 진다는 결과를 바탕으로 제형변화가 가장 심한 중년후기인 50~59세를 연구대상으로 하였다.

## 2. 기성복 치수 설정

2004년 의류제품 치수표준화 사업에 제시된 KS 규격에 나와 있는 의류종류별 신체부위 및 치수간격을 적용하였다. <표 3>는 의류 종류 중 드레스 및 홉드레스의 피트성이 필요한 경우와 피트성이 필요하지 않는 경우의 기본신체부위 및 표시 순서를 나타내 것이다.

<표 3> 드레스 기본 신체부위

단위(cm)

의류 종류	착용구분	기본 신체 부위 및 표시 순서		
		1	2	3
드레스 및 홉드레스	피트성이 필요한 경우	가슴둘레	엉덩이둘레	키
	피트성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	가슴둘레	-	-

드레스의 신체 부위 적용은 피트성이 필요한 경우의 기본 신체 치수로 하였고 그레이딩 편차는 KS 의류치수 규격(2004)에서 제시한 가슴둘레, 허리둘레, 엉덩이둘레 모두 3cm 간격, 키의 경우는 5cm 간격으로 설정하였다. KS 의류치수 규격(2004)에서 제시된 성인 여성복 그레이딩 편차는 <표 4>과 같다.

〈표 4〉 KS 의류치수규격에 의한 그레이딩 편차

단위(cm)

기본 신체 부위	그레이딩 편차	신체 치수
젓가슴둘레	3	· · · · · 79, 82, 85, 88, 91, 94, 97, 100, 103 · ·
허리둘레	3	· · · · · 67, 70, 73, 76, 79, 82, 85, 88, 91, 94 ·
엉덩이둘레	3	· · · · · 85, 88, 91, 94, 97, 100, 103 · · · · ·
키	5	· · · · · 150, 155, 160, 165, 170 · · · · ·

한국산업규격에서 피트성이 필요한 상의의 신체 치수의 보통체형 자료를 보면 한국인 여성의 평균을 기준으로 하였기 때문에 50대 중년여성 치수로는 적합하지 않아 본 연구의 신체치수 호칭은 50대 중년여성 치수에 가장 근접한 94-97-155를 정상체형 치수로 정하였고 97-100-160을 과체중체형 치수로 정하고 100-103-160를 중도비만체형 치수로 정하였다. 중년여성의 표준치수에 키가 154.3cm 이므로 과체중체형과 중도비만체형의 키 편차를 두지 않았다.

연구를 위한 치수체계는 다음 <표 5>와 같다

〈표 5〉 연구를 위한 치수체계

(단위:cm)

체형 항목	정상 (18.5~ 22.9)	과체중 (23~24.9)	중도비만 (25~30미만)
가슴둘레	91	94	97
편차	3		
엉덩이둘레	97	100	103
편차	3		
키	155	160	160
편차	5		

BMI(체질량지수): 체중(kg)/키<sup>2</sup>(m<sup>2</sup>)

### 3. 직접계측 및 피험자 선정

#### 1) 연구대상

서울과 제주에 거주하는 50대 중년여성 40명을 대상으로 인체계측과 BMI를 측정하였으며, Size Korea의 제 5차 한국인인체치수조사에서 제시한 50대 중년여성 표준치수 자료를 사용하였다.

#### 2) 측정방법과 계측항목

직접계측은 2010년 6월~7월에 걸쳐 실시하였으며, 줄자와 체중계, 허리 고무줄, 측정용지 등의 보조용구를 사용하였다. 연구대상은 측정 시 신체를 압박하여 인체 형상을 왜곡하지 않으면서 실루엣을 나타낼 수 있는 민소매 상의와 반바지를 착용하고 바른자세를 유지하도록 하였다.

#### 3) 측정기준점 및 기준선

측정 기준점 및 기준선 설정은 KS K7003(인체측정용어), KS K 7004(인체측정방법)에 준하여 설정하였다.

#### 4) 측정항목

측정항목은 한국인 인체치수조사사업 보고서를 기준으로 하여 인체의 상반신 크기와 형태 파악에 필요한 항목으로 설정하였다. 설정된 항목은 키, 가슴둘레, 젖가슴둘레, 젖가슴아래둘레, 허리둘레, 배꼽수준허리둘레, 엉덩이둘레, 등길이, 앞중심길이, 몸무게 총 10항목이다. 측정항목은 <표 6>에 제시하였다. 직접계측자료를 기술통계분석 하였고 <표 7>은 직접계측 치수의 평균과 Size Korea의 50대 표준치수를 비교한 자료이다.

#### 5) 피험자 선정

직접계측한 50대 중년여성 중 BMI를 기준으로 본 연구의 치수체계와 근접한 피험자를 1명씩 선정하였다. <표 8>은 본 연구를 위해 선정된 피험자들의 신체 치수이다.

〈표 6〉 50대 중년 여성 직접계측 항목

단위(cm),(kg)

	계측항목
높이	키
둘레	가슴둘레, 젖가슴둘레, 젖가슴아래둘레, 허리둘레, 배꼽수준허리둘레, 엉덩이둘레
길이	등길이, 앞중심길이
기타	몸무게

〈표 7〉 50대 중년여성 직접계측 치수와 50대 중년여성의 표준치수

단위(cm)(kg)

항목	본 연구직접계측 (2010)	50대 여성 표준치수 (2003~4)
BMI	23.47(과체중)	25.3(중도비만)
키	158.7	154.3
몸무게	59	59.5
등길이	38.8	38.6
앞중심길이	33.2	33.6
가슴둘레	90	89.7
젖가슴둘레	96.1	93.1
젖가슴아래둘레	84.2	81
허리둘레	80.2	83
배꼽수준허리둘레	89.5	87.2
엉덩이둘레	96.52	93.2

〈표 8〉 피험자의 신체지수

단위(cm),(kg)

항목	정상	과체중	중도비만
BMI	22.83	23.83	25.64
연령	54	54	50
키	158	156	158
몸무게	57	59	64
등길이	38	38	40
앞중심길이	33	34	35
가슴둘레	91	94.5	98
젓가슴둘레	93	96	100
젓가슴아래둘레	81	82	89
허리둘레	77	77	83
배꼽수준 허리둘레	81	82	84.5
엉덩이둘레	95.5	99	101

BMI(Body mass index)={체중(kg)/키(cm)\*키(cm)}\*10<sup>4</sup>

정상 18.5~23미만, 과체중 23~25미만, 중도비만 25~30미만

#### 4. 갈옷드레스 디자인 선정

제주와 서울에 거주하고 있는 50대 중년여성을 대상으로 2010년 1~3월에 걸쳐 갈옷 디자인 선호도 조사를 실시하였다(부록참조). 예비조사 항목은 선호하는 목둘레선과 선호하는 드레스 디자인 2항목으로, 목둘레선은 둥근 목둘레선(round neckline), 네모 목둘레선(square neckline), 브이 목둘레선(v neckline), 보트 목둘레선(boat or bateau neckline) 4가지 목둘레선을 제시 하였고, 드레스 디자인은 토르소 원형에서 벗어나지 않는 기본 실루엣으로 H-라인 디자인, 텐트 디자인, 프린세스 A-라인 디자인, 기본 A-라인 디자인을 제시 하였다. A-라인 보트 네크라인 민소매 갈옷드레스 디자인과 반소매 갈옷드레스의 선호도가 가장 높았다.

본 연구는 선호도가 가장 높은 A-라인 보트 네크라인 민소매 갈옷드레스와, 반소매 갈옷드레스로 디자인을 정하였다. 같은 디자인에 소매가 달린 형태를 원하는 응답자가 있어서 두가지로 하였고, 기본 드레스원형에서 A라인 분량만 패턴에 적용하면 되므로 원형과 디자인을 동시에 검토할 수 있다.

## 5. 갈옷드레스 치수 선정

갈옷드레스를 제작하기 위해 중간치수인 97-100-160(과체중)으로 비교원형을 설계하였다. 중간치수인 97-100-160(과체중)의 참고치수는 <표 9>와 같다.

<표 9> 97-100-160(과체중) 참고치수

단위(cm)(kg)

항목	치수	참고
가슴둘레	94	본 연구 SIZE
젓가슴둘레	97	50대 표준 젓가슴둘레-가슴둘레 편차 적용
유폭	18.6	50대 표준
유장	28.2	50대 표준
앞폭 (겨드랑앞벽접힘사이길이)	33.6	50대 표준
뒤폭 (겨드랑뒤벽접힘사이길이)	36.6	50대 표준
앞중심길이	42	50대표준 앞중심길이 +(chest/20+2.8+1)
허리둘레	83	50대 표준
등길이	39	50대 표준
엉덩이둘레	100	본 연구 SIZE
키	160	본 연구 SIZ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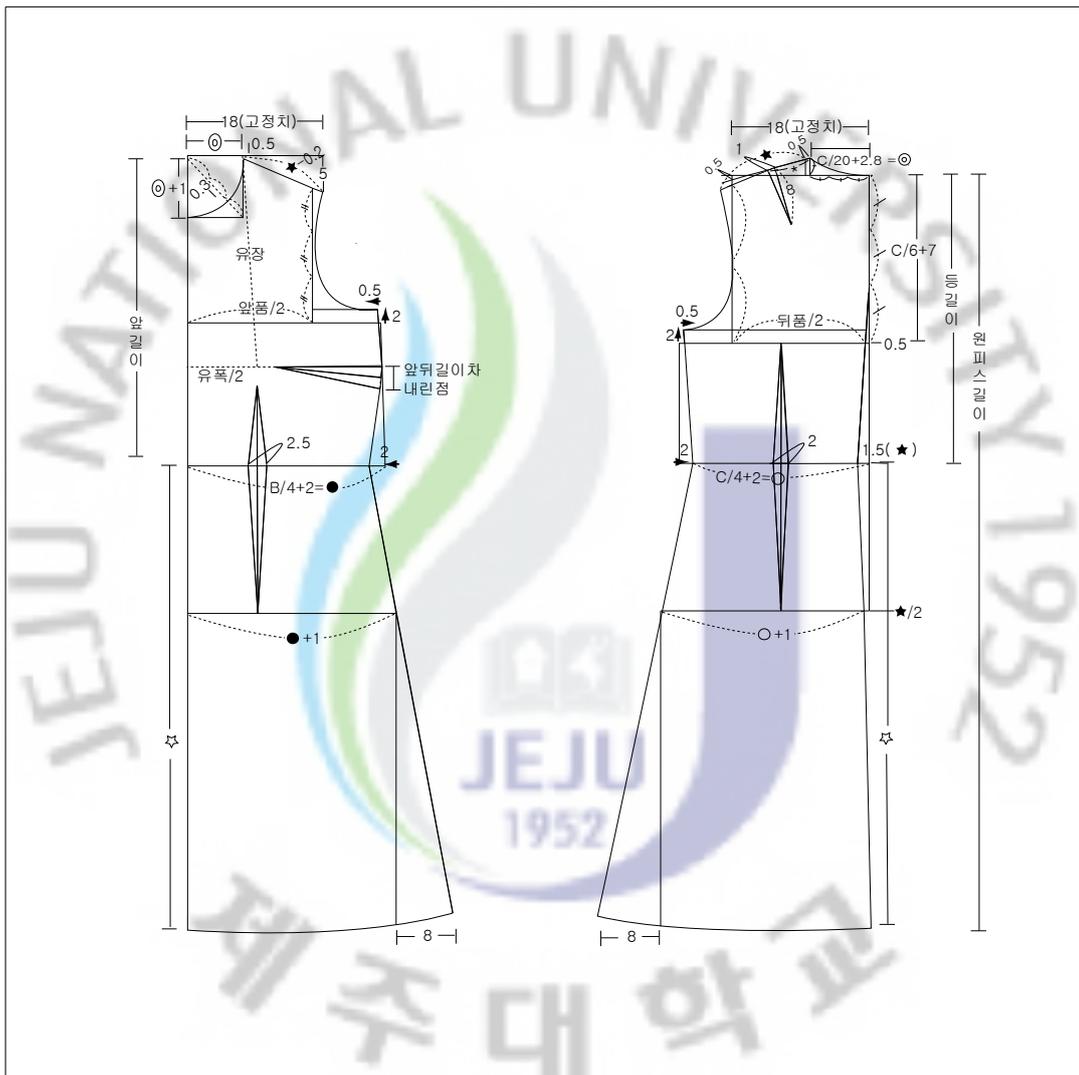
## 6. 갈옷드레스 비교원형 패턴 선정

드레스 원형의 기본이 되는 토르소원형은 현재 대학에서 교육용으로 많이 사용하고 있는 K(권숙희)식, N(남윤자)식, SN(이승렬)식 토르소 원형을 예비착의 평가하여 가장 여유분이 적은 SN식 토르소 원형을 선정하여 기본 드레스 패턴을 제도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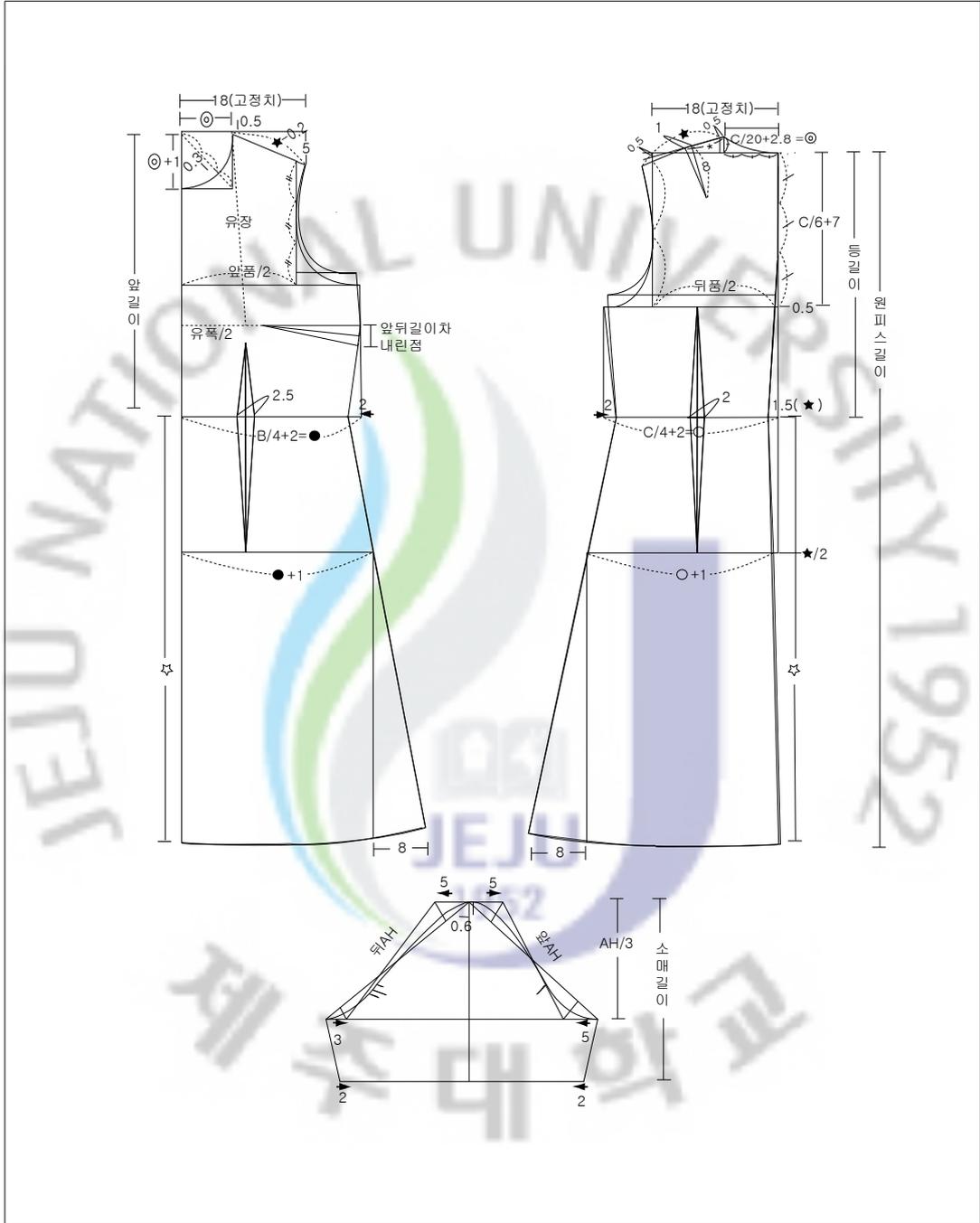
SN식 드레스 패턴을 제작하여 예비착의 평가를 시행 후 비교원형을 설계하였다.

SN식 기본 드레스 패턴 제도방법은 다음 <그림 3>, <그림 4>과 같다.





<그림 3> SN식 민소매 드레스 원형 제도법



<그림 4> SN식 반소매 드레스 원형 제도법

## 7. 착의실험

광목으로 제작한 비교원형을 2차 착의실험 후 수정·보완한 연구원형을 실험소에 감물염색한 광목으로 제작하여 비교원형과 연구원형을 착의시켜 외관 관능 검사를 실시하였다.

### 1) 감물염색

#### (1) 시료

실험에 사용한 직물은 광목(면 100%)이며, 염색에 사용된 감은 제주도 풋감으로 7월 초에 직접 채취하여 분쇄한 후 사용하였다.

#### (2) 염색방법

① 광목에 포함되어 있는 불순물(지방, 풀, 낱등)을 제거하기 위해 맑은 물에 4일 담가 놓고 하루에 한번씩 물을 갈아준 후 따뜻한 물에 세제를 풀어 세탁하였다.

② 물과 감물을 1:1로 하여 염액을 만들었다.

③ 염색하기 전에 정련한 광목을 물에 담가 가볍게 짜주었다.

④ 염료에 정련한 광목을 넣고 주무르면서 골고루 감즙이 흡수되도록 하였다.

⑤ 충분히 감즙이 흡수 되고 나면 감물들인 광목을 잔디밭에 널어 햇빛에 말렸다. 이를 후 물에 적셔 다시 말리고 이 방법을 총3회 반복하였다.

### 2) 실험衣 제작

실험衣는 비교원형은 정련하지 않은 광목원단을 사용하였고 연구원형은 쾌적성을 고려하여 감물염색한 원단을 사용하였다.

소재의 물리적 특성은 다음 <표 10>에 나타내었다.

〈표 10〉 실험衣 소재의 물리적 특징

특성 종류	섬유	조직	번수(Ne)	두께 (m/m)	밀도(올/2.5cm)		강연성 sd(cm)	
					경사	위사	경사	위사
광목	면 (100%)	평직	30's×30's	0.36	60	62	3.12	2.22
감물염색 광목	면 (100%)	평직	30's×30's	0.4	76	77	3.63	2.60

### 3) 외관평가

외관평가는 의류학 전공자 5명의 전문가 집단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 드레스 연구원형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를 위하여 표준적인 관능검사 방법에 의해 관능검사를 실시하였다. 외관 관능검사 항목은 임원자, 최혜주(1998), 박주희(2004)의 항목을 참고로 민소매 드레스 앞 13항목, 옆 8항목, 뒤 12항목으로 총 33항목과 반소매 드레스 앞 14항목, 옆 8항목, 뒤 13항목으로 총 35항목에 대한 설문지를 작성하였다.

그 내용은 <표 11>, <표 12>에 제시하였다. 앞면과 뒷면의 검사항목에 대해서는 피험자가 인체측정학적인 선 자세를 취하도록 하였다.

#### (1) 검사방법 및 평점

점수는 각각의 문항에 대해 Likert Type의 5점 평점척도로 평가하였다. 전체적인 외관 문항은 5점이 최고점이고 나머지 문항은 3점이 최고점으로 환산하여 분석에 사용하였다.

#### (2) 자료처리 및 분석

비교원형과 연구원형을 독립변수로 하여 상관관계분석(correlation coefficient), T-검정(T-test)을 통해서 비교원형과 연구원형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구하고 비교원형과 연구원형의 차이가 있는지 분석하고 그 외에 차이가 없는 문항 역시 외관에 대한 관능검사를 비교 하였다.

이상의 통계분석에는 SPSS/PC +12.0 Package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각 가설은 유의도 \* $p \leq 0.05$ , \*\* $p \leq 0.01$ , \*\*\* $p \leq 0.001$  세가지 수준에서 검증하였다.

〈표 11〉 민소매 갈옷드레스 외관검사 항목

항목	검 사 내 용
1	앞 전체적인 외관은 좋은가.
2	앞 중심선이 신체 중심에 놓여 있는가.
3	앞 목둘레선 위치는 적당한가.
4	앞 옆다트 위치는 적당한가.
5	앞 암홀라인 위치는 적당한가.
6	앞 중심 다트 위치는 적당한가.
7	앞 진동 부분 여유분은 적당한가.
8	앞 목둘레선 여유분은 적당한가.
9	겨드랑이앞벽사이길이 여유분은 적당한가.
10	앞 가슴부위 여유분은 적당한가.
11	앞 허리부위 여유분은 적당한가.
12	앞 배꼽수준허리부위 여유분은 적당한가.
13	앞 중심다트의 길이는 적당한가.
14	옆 전체적인 외관은 좋은가.
15	옆 가슴둘레선은 수평인가.
16	옆 허리둘레선은 수평인가.
17	옆 엉덩이둘레선은 수평인가.
18	옆선이 앞뒤 중심에 놓여있는가.
19	옆 허리부분의 여유분은 적당한가.
20	옆 엉덩이부분의 여유분은 적당한가.
21	옆 어깨선 위치는 적당한가.
22	뒤 전체적인 외관은 좋은가.
23	뒤 중심선이 신체중심에 놓여있는가.
24	뒤 목둘레선 위치는 적당한가.
25	뒤 어깨다트 위치는 적당한가.
26	뒤 암홀라인 위치는 적당한가.
27	뒤 중심다트 위치는 적당한가.
28	뒤 진동부분의 여유분은 적당한가.
29	뒤 목둘레선 여유분은 적당한가.
30	겨드랑이뒤벽사이길이 여유분은 적당한가.
31	뒤 허리부위 여유분은 적당한가.
32	뒤 엉덩이부위 여유분은 적당한가.
33	뒤 중심다트의 길이는 적당한가.

〈표 12〉 반소매 갈옷드레스 외관검사 항목

항목	검 사 내 용
1	앞 전체적인 외관은 좋은가.
2	앞 중심선이 신체 중심에 놓여 있는가.
3	앞 목둘레선 위치는 적당한가.
4	앞 옆다트 위치는 적당한가.
5	앞 암홀라인 위치는 적당한가.
6	앞 중심 다트 위치는 적당한가.
7	앞 소매 여유분은 적당한가.
8	앞 진동 부분 여유분은 적당한가.
9	앞 목둘레선 여유분은 적당한가.
10	겨드랑이앞벽사이길이 여유분은 적당한가.
11	앞 가슴부위 여유분은 적당한가.
12	앞 허리부위 여유분은 적당한가.
13	앞 배꼽수준허리부위 여유분은 적당한가.
14	앞 중심다트의 길이는 적당한가.
15	옆 전체적인 외관은 좋은가.
16	옆 가슴둘레선은 수평인가.
17	옆 허리둘레선은 수평인가.
18	옆 엉덩이둘레선은 수평인가.
19	옆선이 앞뒤 중심에 놓여있는가.
20	옆 허리부분의 여유분은 적당한가.
21	옆 엉덩이부분의 여유분은 적당한가.
22	옆어깨선 위치는 적당한가.
23	뒤 전체적인 외관은 좋은가.
24	뒤 중심선이 신체중심에 놓여있는가.
25	뒤 목둘레선 위치는 적당한가.
26	뒤 어깨다트 위치는 적당한가.
27	뒤 암홀라인 위치는 적당한가.
28	뒤 중심다트 위치는 적당한가.
29	뒤 진동부분의 여유분은 적당한가.
30	뒤 목둘레선 여유분은 적당한가.
31	뒤 소매 여유분은 적당한가.
32	겨드랑이뒤벽사이길이 여유분은 적당한가.
33	뒤 허리부위 여유분은 적당한가.
34	뒤 엉덩이부위 여유분은 적당한가.
35	뒤 중심다트의 길이는 적당한가.

## IV. 연구 결과 및 고찰

### 1. BMI집단 간 젓가슴둘레 차이

젓가슴둘레에 대한 BMI지수 세 집단 간 차이를 검증한 결과 각 집단간 동일한 집단이 평균이 차이가 있었고 따라서 BMI지수에 따라 젓가슴둘레의 차이가 있다고 할 수 있다. <표 13>은 BMI그룹간 젓가슴둘레 차이를 나타낸 표이다.

<표 13> BMI집단 간 젓가슴둘레 차이

집단 구분	정상집단		과체중집단		중도비만집단		F값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젓가슴 둘레	89.2 a	4.601	98.35 b	8.14	102.71 b	2.69	12.03***

\*p<0.05, \*\*p<0.01, \*\*\*p<0.001

scheffé test 결과 동일 문자는 집단간 유의한 차이가 없음: ab

### 2. 직접계측한 50대 여성의 인체치수 간의 상관계수

<표 14>를 보면 BMI는 키와 앞중심길이를 제외하고 모두 유의한 차가 있다고 나왔으며 몸무게와 가슴둘레의 상관계수가 높게 나왔다

키는 몸무게와 앞중심길이 젓가슴아래둘레가 유의한 차가 있다고 나왔으며 몸무게가 가장 상관계수가 높게 나왔다.

몸무게는 모두 유의한 차가 있다고 나왔으며 BMI, 가슴둘레, 젓가슴둘레의 상관계수가 높게 나왔다. 등길이는 키를 제외하고 모두 유의한 차가 있다고 나왔

으나 상관계수는 낮게 나왔다. 앞길이는 BMI와 배꼽수준 허리둘레를 제외하고 유의한 차가 있다고 나왔으나 상관계수는 낮게 나왔다. 가슴둘레는 키를 제외하고 모두 유의한 차가 있다고 나왔고 BMI, 몸무게, 젓가슴둘레, 젓가슴아래둘레, 허리둘레의 상관계수가 높게 나왔다. 젓가슴둘레는 키를 제외하고 모두 유의한 차가 있다고 나왔고 몸무게, 가슴둘레, 젓가슴아래둘레, 허리둘레, 배꼽수준 허리둘레의 상관계수가 높게 나왔다. 젓가슴아래둘레는 모두 유의한 차가 있고 가슴둘레, 젓가슴둘레, 허리둘레의 상관계수가 높게 나왔다. 허리둘레는 키를 제외하고 모두 유의한 차가 있다고 나왔고 가슴둘레, 젓가슴둘레, 젓가슴아래둘레, 배꼽수준허리둘레의 상관계수가 높게 나왔다. 배꼽수준허리둘레는 키와 앞중심길이를 제외하고 모두 유의한 차가 나왔고 젓가슴둘레, 허리둘레의 상관계수가 높게 나왔다 엉덩이 둘레는 키를 제외하고 모두 유의한 차가 나왔고 몸무게의 상관계수가 가장 높게 나왔다. 이상의 결과를 정리하면 BMI는 키와 앞중심길이를 제외하고 모두 유의한 차이가 있고 체형에 결정하는데 중요한 지수인 가슴둘레, 허리둘레, 엉덩이둘레와 강한 상관이 있다는 결과가 나왔다.

### 3. 여성의 인체치수 간의 상관계수

Size Korea의 제 5차 인체치수의 자료 중 50대 여성의 치수 간의 상관계수 중 대표부위 변수와 둘레 및 두께-너비 관련 변수를 살펴보았다. <표 15>를 보면 가슴두께는 가슴둘레와 가장 상관계수가 크고 몸무게는 엉덩이둘레와 상관계수가 크며 가슴둘레는 허리둘레와 몸무게에 상관계수가 크다고 나왔다. 즉, 몸무게와 가슴둘레 허리둘레 엉덩이둘레는 상관계수가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16>를 보면 가슴둘레는 젓가슴둘레와 상관계수가 가장 크고 젓가슴아래둘레, 허리둘레, 배꼽수준허리둘레, 엉덩이둘레, 몸무게와도 상관계수가 크며 젓가슴둘레는 가슴둘레와 허리둘레의 상관계수가 가장 크고 젓가슴아래둘레와 배꼽수준허리둘레, 몸무게도 상관계수가 크다. 젓가슴아래둘레와 허리둘레 배꼽수준허리둘레 역시 가슴둘레와 젓가슴둘레의 상관계수의 변수가 같다. 젓가슴아래둘레는 젓

가슴둘레의 상관계수가 가장 크고 허리둘레와 배꼽수준허리둘레는 서로의 상관계수가 가장 크다. 이 결과를 보면 둘레치수 관련 상관계수가 높은 것은 가슴둘레, 젖가슴둘레, 젖가슴아래둘레, 허리둘레, 배꼽수준허리둘레, 엉덩이둘레, 몸무게 이다. <표 17>를 보면 젖가슴너비는 허리너비가 상관계수가 가장 크고 배꼽수준허리너비, 몸무게와 상관계수가 크다. 허리너비는 배꼽수준허리너비가 상관계수가 가장 크고 젖가슴너비와 배꼽수준허리두께와 상관계수가 크다. 배꼽수준허리너비는 허리너비가 상관계수가 가장 크고 젖가슴너비, 배꼽수준허리두께, 몸무게가 상관계수가 크다. 젖가슴두께는 허리두께와 상관계수가 가장 크고 허리두께는 배꼽수준허리두께와 상관계수가 가장 크다. 배꼽수준허리두께는 허리두께와 상관계수가 가장 크며 허리너비, 배꼽수준허리너비와도 상관계수가 크다. 몸무게는 젖가슴너비와 배꼽수준허리너비의 상관계수가 가장 크게 나왔다. 두께-너비의 높은 상관계수변수는 젖가슴너비, 허리너비, 배꼽수준허리너비, 몸무게, 배꼽수준허리두께, 허리두께가 서로 상관관계가 높았다. 3가지 표를 정리한 결과에서 알 수 있듯이 몸무게는 젖가슴둘레와 허리의 둘레와 너비, 및 두께, 엉덩이 둘레가 상관계수가 높아 BMI로 체형을 나누었을 때 무리가 없다고 할 수 있겠다.

<표 14> 직접계측한 50대 여성의 인체치수 상관계수

변수	a1	a2	a3	a4	a5	a6	a7	a8	a9	a10	a11
a1 BMI	1	-.005	.815**	.451*	.303	.815**	.762**	.622**	.712**	.584**	.705**
a2 키	-.005	1	.554**	.315	.433*	.266	.310	.398*	.251	.285	.302
a3 몸무게	.815**	.554**	1	.556**	.500**	.844**	.824**	.757**	.784**	.687**	.782**
a4 등길이	.451*	.315	.556**	1	.381*	.568**	.573**	.567**	.565**	.507**	.595**
a5 앞중심길이	.303	.433*	.500**	.381*	1	.499**	.437*	.498**	.427*	.343	.387*
a6 가슴둘레	.815**	.266	.844**	.568**	.499**	1	.949**	.825**	.856**	.785**	.692**
a7 젖가슴둘레	.762**	.310	.824**	.573**	.437*	.949**	1	.890**	.865**	.874**	.652**
a8 젖가슴아래 둘레	.622**	.398*	.757**	.567**	.498**	.825**	.890**	1	.871**	.764**	.667**
a9 허리둘레	.712**	.251	.784**	.565**	.427*	.856**	.865**	.871**	1	.837**	.772**
a10 배꼽수준 허리둘레	.584**	.285	.687**	.507**	.343	.785**	.874**	.764**	.837**	1	.560**
a11 엉덩이둘레	.705**	.302	.782**	.595**	.387*	.692**	.652**	.667**	.772**	.560**	1

\*p<0.05, \*\*p<0.01

〈표 15〉 여자 40~59세 대표부위 변수 간 상관계수

변수	a2	a14	a22	a32	a40	a43	a45	a68	a80	a104
a2 키	1	0.83	0.11	0.34	0.09	-0.1	0.26	0.67	0.79	0.28
a14 위앞영덩뻤 가시높이	0.83	1	0.03	0.19	0	-0.1	0.15	0.65	0.49	0.18
a22 가슴두께	0.11	0.03	1	0.71	0.75	0.71	0.58	0.31	0.02	0.19
a32 몸무게	0.34	0.19	0.71	1	0.84	0.81	0.86	0.41	0.23	0.35
a40 가슴둘레	0.09	0	0.75	0.84	1	0.85	0.7	0.3	0	0.24
a43 허리둘레	-0.1	-0.1	0.71	0.81	0.85	1	0.67	0.23	-0.2	0.16
a45 영덩이둘레	0.26	0.15	0.58	0.86	0.7	0.67	1	0.32	0.21	0.29
a68 팔길이	0.67	0.65	0.31	0.42	0.3	0.23	0.32	1	0.36	0.21
a80 앞은키	0.79	0.49	0.02	0.23	0	-0.2	0.21	0.36	1	0.28
a104 머리둘레	0.28	0.18	0.19	0.35	0.24	0.16	0.29	0.21	0.28	1

Size Korea(2007)

<표 16> 여자 40~59세 들레 관련 변수 간 상관계수

변수	a2	a14	a22	a32	a40	a43	a45	a68	a80	a104
a2 키	1	0.83	0.11	0.34	0.09	-0.1	0.26	0.67	0.79	0.28
a14 위앞엉덩뼈 가시높이	0.83	1	0.03	0.19	0	-0.1	0.15	0.65	0.49	0.18
a22 가슴두께	0.11	0.03	1	0.71	0.75	0.71	0.58	0.31	0.02	0.19
a32 몸무게	0.34	0.19	0.71	1	0.84	0.81	0.86	0.41	0.23	0.35
a40 가슴둘레	0.09	0	0.75	0.84	1	0.85	0.7	0.3	0	0.24
a43 허리둘레	-0.1	-0.1	0.71	0.81	0.85	1	0.67	0.23	-0.2	0.16
a45 엉덩이둘레	0.26	0.15	0.58	0.86	0.7	0.67	1	0.32	0.21	0.29
a68 팔길이	0.67	0.65	0.31	0.42	0.3	0.23	0.32	1	0.36	0.21
a80 앞은키	0.79	0.49	0.02	0.23	0	-0.2	0.21	0.36	1	0.28
a104 머리둘레	0.28	0.18	0.19	0.35	0.24	0.16	0.29	0.21	0.28	1

Size Korea(2007)

<표 17> 여자 40~59세 두께-너비 관련

변수	a2	a14	a22	a32	a40	a43	a45	a68	a80	a104
a2 키	1	0.83	0.11	0.34	0.09	-0.1	0.26	0.67	0.79	0.28
a14 위앞영덩뻐 가시높이	0.83	1	0.03	0.19	0	-0.1	0.15	0.65	0.49	0.18
a22 가슴두께	0.11	0.03	1	0.71	0.75	0.71	0.58	0.31	0.02	0.19
a32 몸무게	0.34	0.19	0.71	1	0.84	0.81	0.86	0.41	0.23	0.35
a40 가슴둘레	0.09	0	0.75	0.84	1	0.85	0.7	0.3	0	0.24
a43 허리둘레	-0.1	-0.1	0.71	0.81	0.85	1	0.67	0.23	-0.2	0.16
a45 영덩이둘레	0.26	0.15	0.58	0.86	0.7	0.67	1	0.32	0.21	0.29
a68 팔길이	0.67	0.65	0.31	0.42	0.3	0.23	0.32	1	0.36	0.21
a80 앞은키	0.79	0.49	0.02	0.23	0	-0.2	0.21	0.36	1	0.28
a104 머리둘레	0.28	0.18	0.19	0.35	0.24	0.16	0.29	0.21	0.28	1

Size Korea(2007)

#### 4. 갈옷드레스 디자인 선정

갈옷드레스 디자인 예비조사결과 A-line 보트 네크라인 민소매, 반소매 드레스로 디자인이 선정 되었다. A-line 보트 네크라인 민소매 갈옷드레스 도식화는 <그림 5>에 제시하였으며, A-line 보트 네크라인 반소매 갈옷드레스 도식화는 <그림 6>과 같다.





<그림 5> A-line 보트 네크라인 민소매 갈옷드레스 도식화



<그림 6> A-line 보트 네크라인 반소매 갈옷드레스 도식화

## 5. 갈옷드레스 비교원형 패턴 설계

50대 중년여성 체형에 잘 맞는 갈옷드레스를 제작하기 위해 몸무게, 가슴둘레, 허리둘레, 엉덩이둘레를 원피스 제작에 고려하였다. SN식의 비교원형으로 갈옷드레스를 제작하여 2차에 걸친 착의실험을 통하여 체형별 연구원형을 설계하였다. 치수는 중간 사이즈인 97-100-160을 사용하였다.

### 1) 갈옷드레스 비교원형 패턴 선정

현재 대학에서 교육용으로 많이 사용하고 있는 K식, N식, SN식 토르소 원형을 예비착의 평가 한 결과 여유분이 가장 적은 SN식 토르소 원형을 선정하였다. 토르소 원형 패턴 적용치수는 <표 18>와 같다. 토르소 원형의 패턴의 앞품인 경우 N식이 여유분이 가장 많았다. 뒤품인 경우는 K식이 여유분이 가장 많이 나왔다. 앞 허리둘레 여유분인 경우는 N식이 가장 여유분이 많게 나오고 SN식과 K식은 여유분이 동일했다. 뒤 허리둘레 여유분은 N식이 가장 여유분이 많게 나왔다. 앞 엉덩이둘레 여유분은 N식이 가장 여유분이 많게 나왔고 뒤 엉덩이둘레의 여유분은 K식이 가장 많게 나왔다. 앞다트폭은 K식>SN식>N식 순으로 나왔고 뒤다트폭은 K식>N식>SN식 순으로 나왔다. K식, N식, SN식 패턴제작시 여유분 적용 값은 <표 19>과 같다.<표 19>의 B=젓가슴둘레, C=가슴둘레, W=허리둘레, H=엉덩이둘레를 나타낸다.

### 2) 갈옷드레스 비교원형 설계

여유분이 적고 모든 체형에 보편적으로 잘 맞는 절충식(병용식)인 SN식(이승렬, 1999) 토르소 패턴을 기본으로 하여 기본 드레스 제작 후 예비실험으로 2회 착의 및 수정 후 본 연구의 비교원형을 설계하였다. 민소매 드레스 비교원형 설계는 <그림 7>에 제시하였으며, 반소매 드레스 비교원형 설계는 <그림 8>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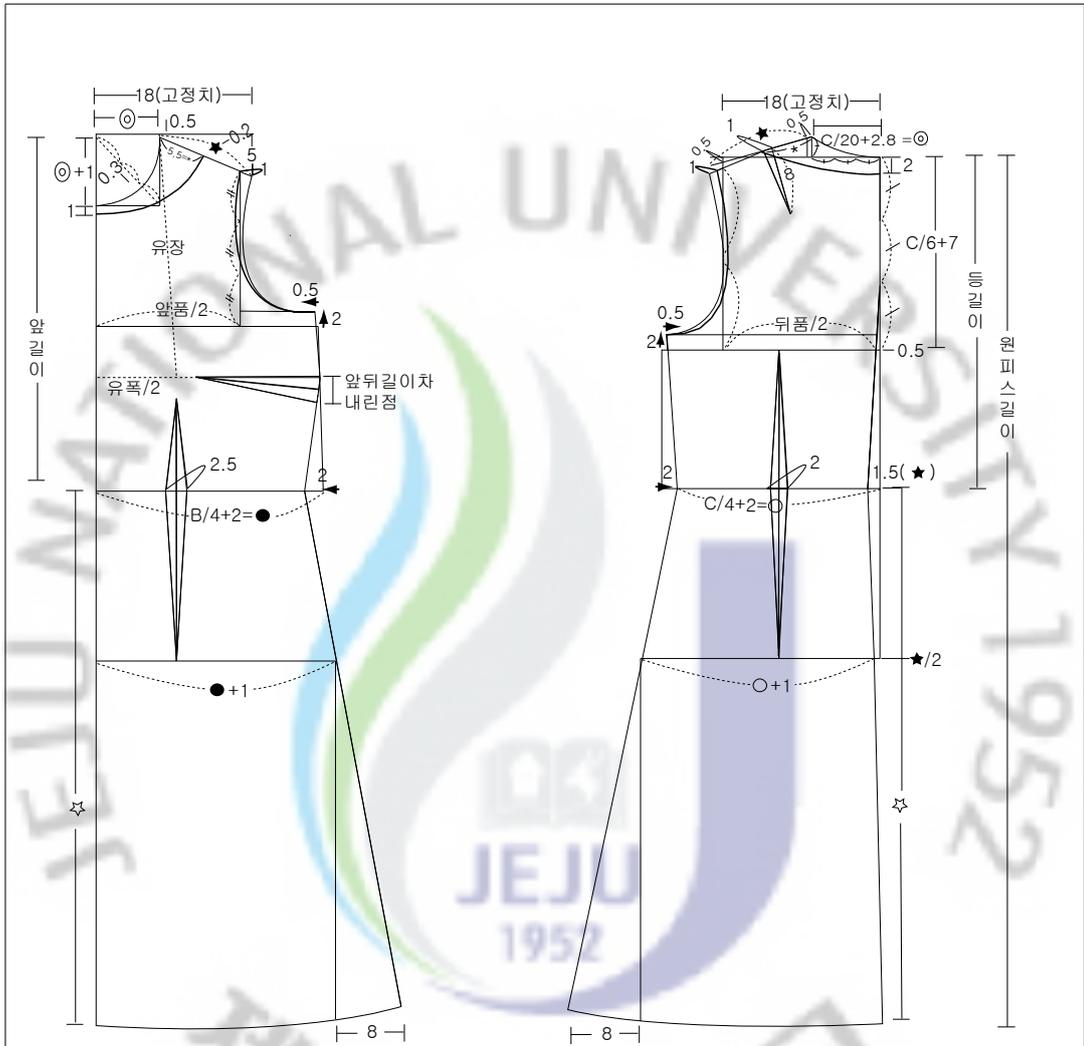
〈표 18〉 토르소 원형 패턴 적용치수

단위(c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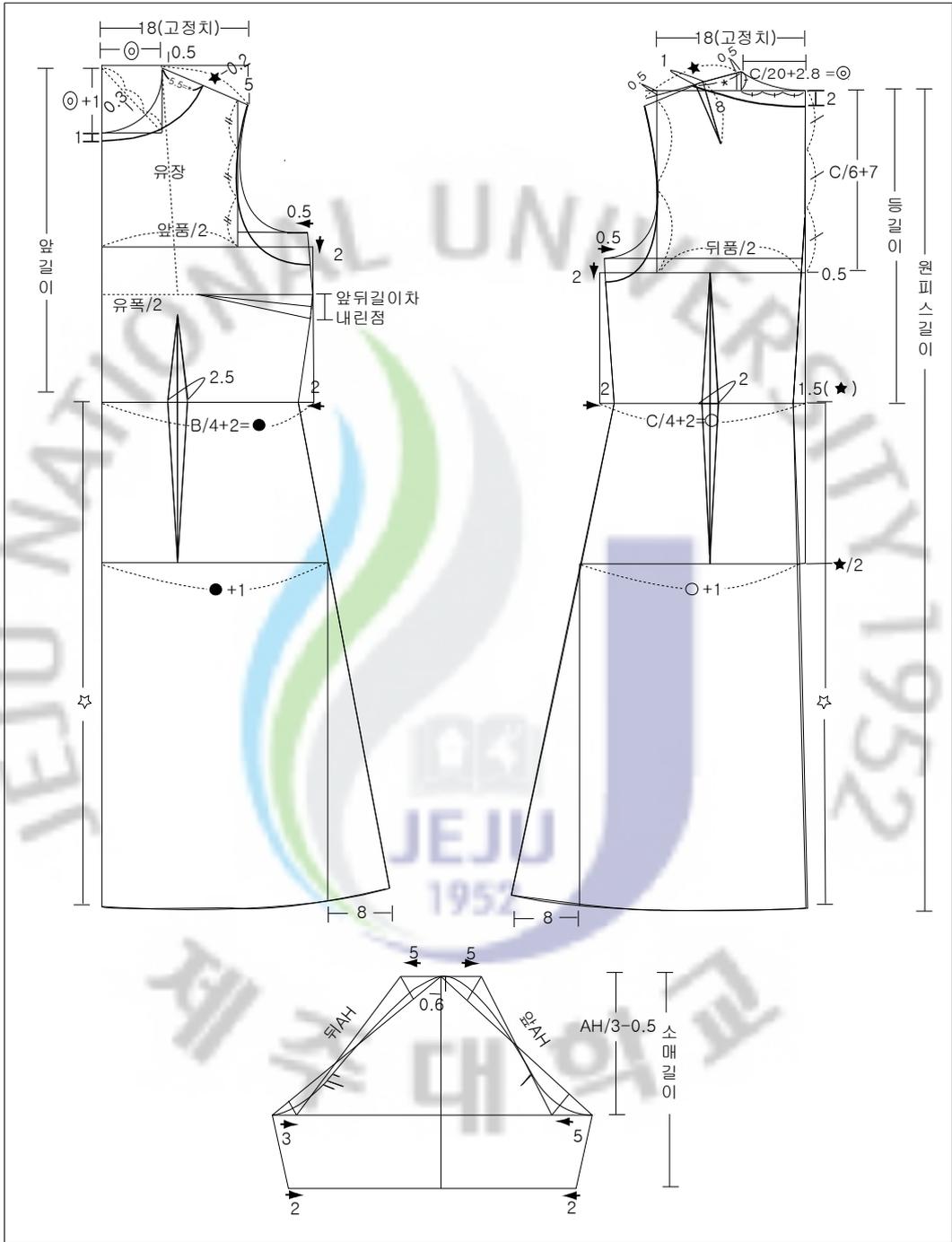
97-100-160		가슴둘레	94
젓가슴둘레	97	허리둘레	83
앞품	33.6	엉덩이 길이	20.5
뒤품	36.6	엉덩이 둘레	100

〈표 19〉 SN식, N식, K식 패턴제작 시 여유분 적용 값

호칭	SN식	N식	K식
앞품	앞품/2-0.5 33.6/2-0.5=	B/8+6 97/8+6=	B/6+2.5 97/6+2.5
실제 적용 길이	16.5	18.13	18.6
뒷품	뒤품/2 36.6/2=	B/8+7.5 97/8+7.5=	B/6+4 97/6+4
실제 적용 길이	17.3	19.63	20.17
허리(앞)	B/4-D(2.5) 97/4-2.5=	W/4+1.5+1 83/4+1.5+1	W/4+0.5+0.5
실제 적용 길이	21.75	23.25	21.75
다트폭	2.5	[ {(B/2+5)/2-0.5} ] - 1.2-(W/4+1.5+1) 1.8	[ {(H/2+2)/2-(W/4+0.50.5)} /3] *2=● 2.84
허리(뒤)	B/4-1.5-D(2) 97/4-1.5-2=	W/4+1.5-1 83/4+1.5-1	W/4-0.5+0.5
실제 적용 길이	20	21.25	20.17
다트폭	2	[ [ {(B/2+5)/2+0.5} ] -1.2] -2-(W/4+1.5-1) 2.8	●+1 3.84
엉덩이(앞)	B/4+1 97/4+1=	H/4+(1~1.5)+1 100/4+1.5+1	H/4+1 100/4+1
실제 적용 길이	25.25	27.5	26
엉덩이(뒤)	C/4+0.25 94/4+0.25=	H/4+(1~1.5)-1 100/4+1.5-1	H/4+1
실제 적용 길이	23.75	25.5	26



<그림 7> 민소매 갈옷드레스 비교원형 설계



〈그림 8〉 반소매 갈옷드레스 비교원형 설계

## 6. 갈옷드레스 연구원형 패턴 설계

SN식의 비교원형으로 갈옷드레스를 제작하여 2차에 걸친 착의실험을 통하여 체형별 연구원형을 설계하였다. 기본이 되는 치수는 중간 사이즈인 97-100-160을 사용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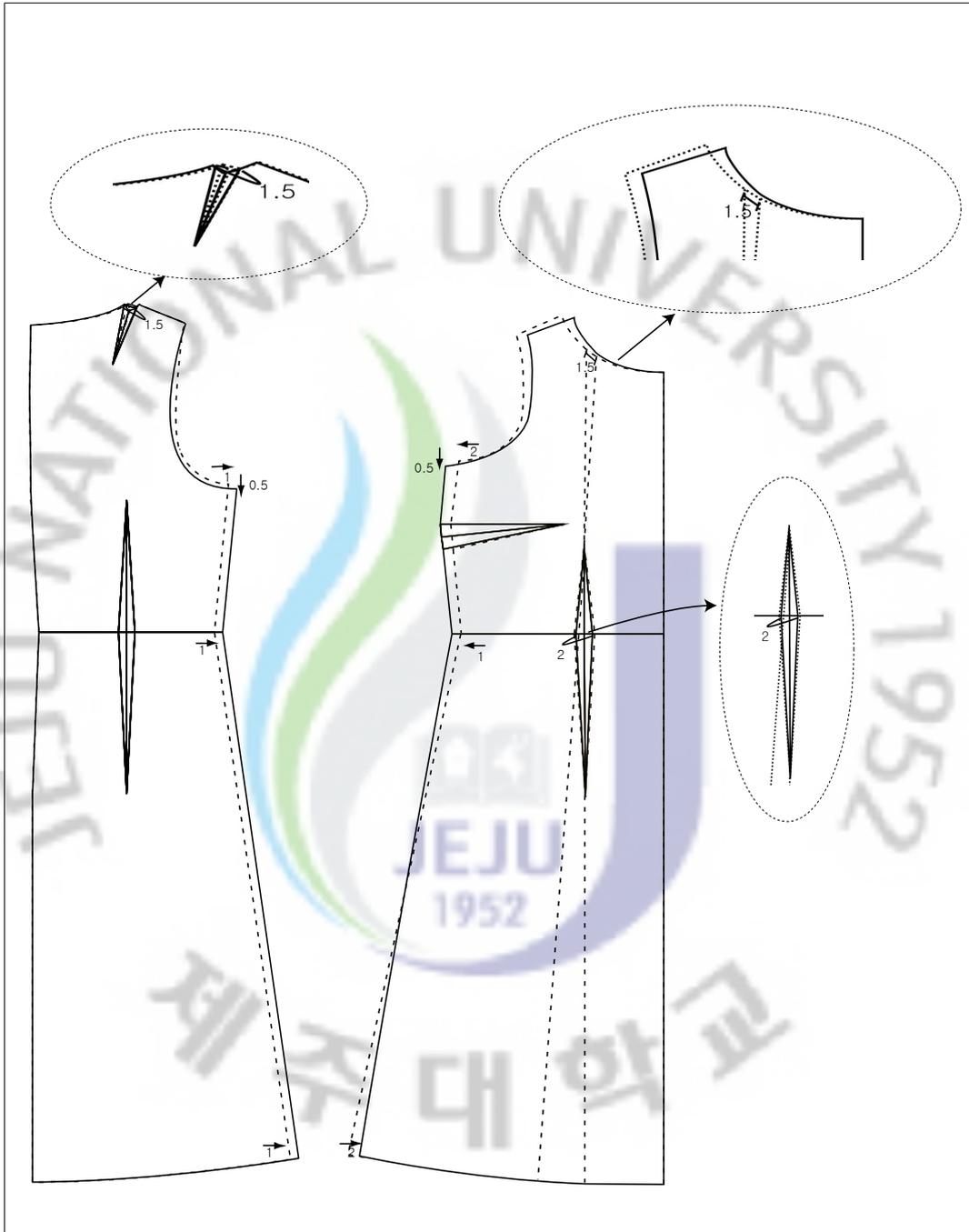
### 1) 갈옷드레스 연구원형 설계

50대 여성의 체형특징은 비만현상이 뚜렷하고 너비나 두께, 들레항목이 증가한다. 착의 실험에서는 기존의 비교원형을 착의시킨 후에 전체적인 실루엣, 목둘레, 가슴둘레, 겨드랑앞벽사이길이, 겨드랑뒤벽사이길이, 허리둘레, 배꼽수준허리둘레, 엉덩이둘레 여유분, 다트위치, 뒤목둘레선 위치 등을 검토하여 보정할 점을 찾았다. 체형에 의한 목둘레부위의 부적합성, 전체적 여유분 등이 시정되어야 할 것으로 논의되었다

#### (1) 민소매 갈옷드레스 연구원형

앞목라인에 들뜨는 분량이 많아서 앞목둘레선의 1.5cm를 겹쳐 그 분량을 스커트로 이동시켰다. 앞가슴의 여유분이 적었고 앞목둘레선의 겹침으로 겨드랑앞접힘사이길이 0.56cm정도 줄어 총 겨드랑앞접힘사이길이를 2cm의 여유분을 추가하였다. 앞진동둘레선이 밖으로 많이 나왔으며 앞진동의 여유분이 적어 0.5cm 밑으로 내리고 진동선을 안쪽으로 이동하였다. 앞허리둘레의 여유분도 적어 옆선중심으로 1cm의 여유분을 주면서 2.5cm인 다트폭을 2cm로 줄였다. 스커트 폭이 4cm 증가하여 옆선을 중심으로 스커트 폭을 2cm를 줄였다.

뒤목라인 역시 들뜨는 분량이 생겨 1cm인 다트를 1.5cm로 하여 들뜨는 분량을 잡아주었고 뒤판의 겨드랑뒤접힘사이길이와 뒤허리둘레, 여유분이 적어 각각 1cm의 여유분을 추가하였으며 스커트폭도 자연스럽게 연결하기 위하여 1cm 더 주었다. 뒤진동선을 0.5cm 밑으로 내리고 진동선을 안쪽으로 이동하였다. <그림 9>를 보면 점선은 비교원형을, 검정선은 연구원형을 나타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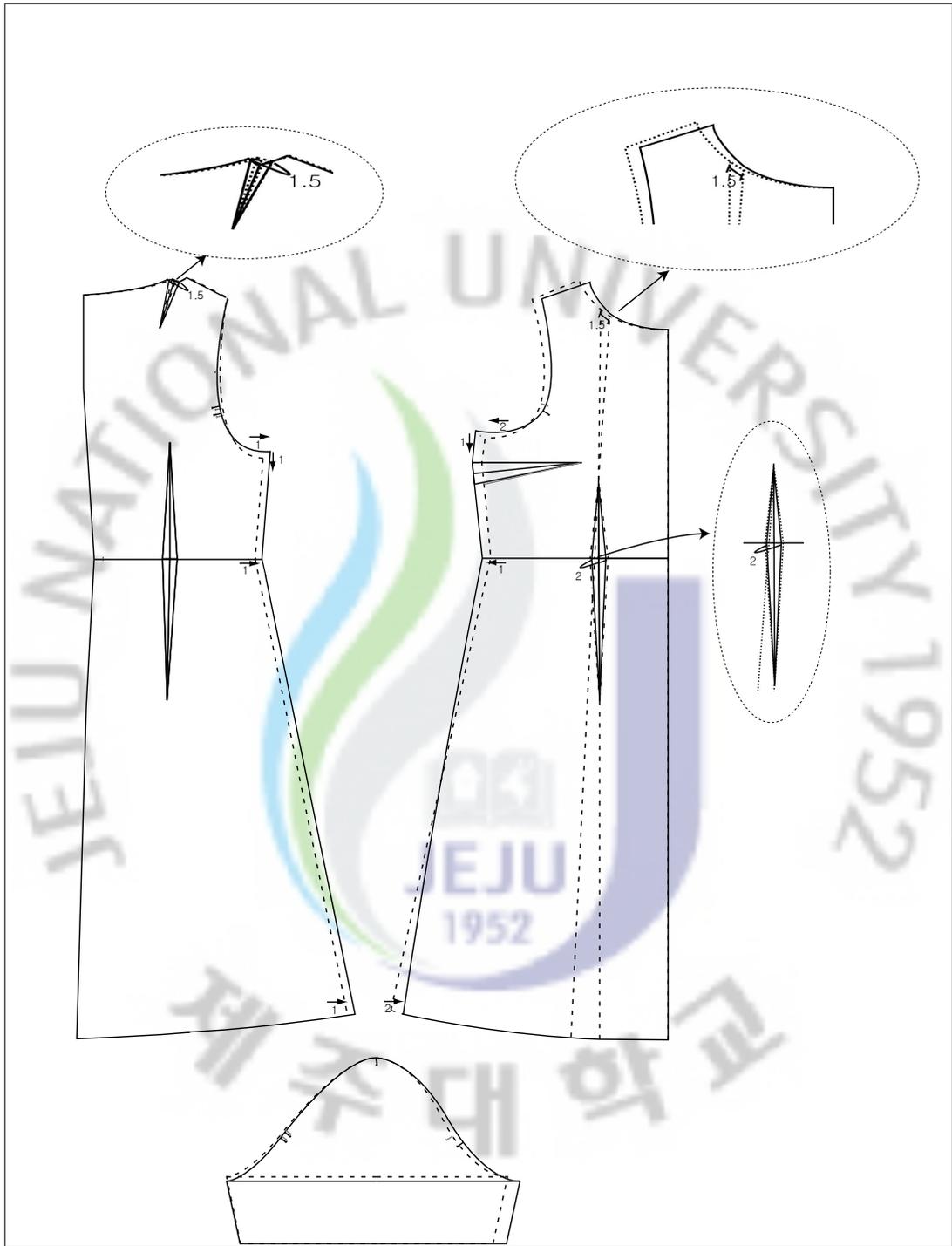
..... 비교원형  
 —— 연구원형

<그림 9> 민소매 갈옷드레스 비교원형과 연구원형

## (2) 반소매 갈옷드레스 연구원형

반소매 드레스의 앞목라인 들뜨는 분량은 민소매 드레스와 같아 앞목둘레선의 1.5cm를 겹치고 그 분량을 스커트로 이동시켰으며 앞목둘레선의 겹침으로 줄어드는 겨드랑이접힘사이 길이와 보완할 여유분을 더하여 겨드랑이접힘사이길이에 2cm의 여유분을 추가 하였고, 겹침으로 생기는 스커트폭에서 2cm를 줄였으며, 앞허리선의 여유분을 1cm추가 하면서 다트분량은 2.5cm에서 2cm로 줄였다. 소매부분에서 답답한 느낌과 부자연스러운 동작이 나와 진동의 여유분이 적어 앞진동을 1cm 밑으로 내렸다.

반소매 드레스의 뒤목라인 부분에 들뜨는 분량이 생겨 다트의 폭 1cm를 1.5cm로 주었고 겨드랑이접힘사이 길이와 뒤허리둘레 여유분을 각각 1cm 더 주었으며 스커트폭을 자연스럽게 연결하기 위해서 1cm 더 주었다. 뒷진동부분을 밑으로 0.5cm 내려 여유분을 주었다. <그림 10>을 보면 점선은 비교원형을, 검정선은 연구원형을 나타낸다.



..... 비교원형  
 —— 연구원형

<그림 10> 반소매 갈옷드레스 비교원형과 연구원형

## 7. 갈옷드레스 비교원형과 연구원형 착의평가

연구원형에 대한 적합성을 규명하기 위하여 기존의 비교원형과 연구원형을 착의시켜 외관평가를 실시하였으며, 두 가지 기본원형 간의 항목별 차이점을 검증하기 위해 t-검정을 실시하였다.

### 1) 외관평가 결과

#### (1) 민소매 갈옷드레스의 외관평가 결과

민소매 드레스의 외관평가 결과 앞 전체적 외관, 앞 중심다트 위치, 앞 중심다트 위치, 앞 진동 여유, 앞목둘레선 여유, 겨드랑이앞백사이길이 여유, 앞 가슴부위 여유, 배꼽수준허리부위 여유, 옆 전체적 외관, 옆 허리부분 여유, 옆 엉덩이부분 여유, 옆 어깨선 위치, 뒤 진동부분 여유, 뒤 목둘레선 여유, 뒤 허리부위 여유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① 전체적인 외관 만족도는 여유분이 많은 연구원형이 좋다는 평가가 나왔고 앞 중심다트 위치의 유의한 차이는 패턴의 다트 위치는 변화가 없으나 패턴에 여유분이 더해지면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② 앞 진동 여유, 겨드랑이앞백사이길이 여유, 앞가슴부위 여유, 앞 배꼽수준허리부위 여유, 뒤 진동부분 여유, 뒤 허리부위 여유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난 것은 중년여성이 가슴, 배 및 진동과 상완 등의 둘레 항목이 증가하므로 생긴 결과인 것으로 보인다.

③ 어깨선 위치의 유의한 차이는 패턴의 어깨위치 변화는 없었으나, 뒤 어깨다트량과 겨드랑이접힘사이길이의 여유량의 차이로 인해 유의한 차이가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④ 앞목둘레선 여유와 뒷목둘레선 여유에 유의한 차가 나타났다. 중년여성의 체형이 숙인체형이 비율이 크기 때문으로 사료된다.

⑤ 전체적인 실루엣과 여유량에 관한 문항에서 비교원형보다 연구원형이 높

게 평가 되어 신체 적합한 원형 설계로 사료된다.

<표 20>은 민소매 갈옷드레스의 외관평가 결과를 제시하였고, <그림 11>는 민소매 비교원형과 연구원형 착의사진을 제시하였다.



〈표 20〉 민소매 갈옷드레스 외관평가 결과

항목	검사내용	비교원형(n=5)		연구원형(n=5)		T값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1	앞 전체적 외관	2.70	0.48	3.70	0.95	-2.97**
2	앞 목둘레선 위치	3.10	0.74	2.90	0.32	0.79
3	앞 다트 위치	3.30	0.48	3.20	0.42	0.49
4	앞 암홀라인 위치	3.10	0.88	3.00	0.00	0.36
5	앞 중심다트 위치	2.50	0.71	3.10	0.32	-2.44*
6	앞 진동 여유	2.10	0.32	3.20	0.42	-6.60***
7	앞 목둘레선 여유	3.7	0.48	3.20	0.42	-6.66***
8	겨드랑이앞벽사이길이 여유	2.00	0.67	3.00	0.00	-4.74***
9	앞 가슴부위 여유	2.10	0.57	3.00	0.00	-5.01***
10	앞 허리부위 여유	2.70	0.48	2.90	0.32	-1.10
11	앞 배꼽수준허리부위 여유	2.20	0.92	3.50	0.53	-3.88**
12	옆 전체적 외관	2.60	0.52	3.00	0.00	-2.44*
13	옆 가슴둘레 수평	2.90	0.32	3.00	0.00	-1.00
14	옆 허리부분 여유	2.50	0.53	3.00	0.00	-3.67**
15	옆 엉덩이부분 여유	2.40	0.52	3.00	0.00	-4.24***
16	옆 어깨선 위치	2.50	0.53	3.50	0.53	-2.88**
17	뒤 전체적 외관	2.90	0.32	3.60	0.70	-0.79
18	뒤 목둘레선 위치	3.10	0.32	3.10	0.32	0.00
19	뒤 어깨다트 위치	2.90	0.32	3.00	0.00	-1.00
20	뒤 암홀라인 위치	2.30	0.95	3.10	0.32	-2.52
21	뒤 중심다트 위치	3.10	0.32	3.10	0.32	0.00
22	뒤 진동부분 여유	2.20	0.63	3.10	0.32	-4.02***
23	뒤 목둘레선 여유	3.50	0.53	3.00	0.00	3.00**
24	겨드랑이뒤벽사이길이 여유	2.60	0.70	3.00	0.00	-1.81
25	뒤 허리부위 여유	2.50	0.53	3.70	0.82	-3.88**
26	뒤 엉덩이 여유	2.90	0.32	3.00	0.00	-1.00
27	뒤 중심다트의 길이	2.90	0.32	2.9	0.32	0.00

\*p<0.05, \*\*p<0.01, \*\*\*p<0.001

	앞	옆	뒤
비교 원형			
연구 원형			

<그림 11> 민소매 갈옷드레스 비교원형과 연구원형 착의사진

## (2) 반소매 갈옷드레스의 외관평가

반소매 드레스의 외관평가 결과 앞 전체적외관, 앞 진동여유, 앞 소매여유, 앞 목둘레선 여유, 앞 배꼽수준허리부위 여유, 옆 전체적 외관, 옆 엉덩이 부분의 여유, 옆 어깨선 위치, 뒤 진동부분 여유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① 전체적인 외관 만족도는 여유분이 많은 연구원형이 높게 나왔다. 반소매의 드레스의 여유분이 소매의 영향으로 민소매 드레스 여유분 보다 조금 더 있어 민소매 드레스의 외관 만족도보다 반소매 드레스의 외관 만족도가 조금 높게 나왔다.

② 앞 소매의 여유분에 유의한 차이가 나는 이유는 중년여성의 신체변화 특징 중 하난 인 윗팔둘레 증가의 영향으로 사료된다. Size Korea 2005년 제 5차 한국인 인체치수조사자료를 보면 20대 평균 윗팔둘레는 25.8cm이고 50~59세의 윗팔둘레는 29.3cm로 3.5cm 차이를 보인다.

③ 어깨선의 위치의 유의차는 민소매 드레스와 마찬가지로 뒤 어깨 다트량과 겨드랑이접힘사이길이의 여유량의 차이로 인해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④ 앞 목둘레선 여유와 뒤 목둘레선 여유의 유의차는 민소매 드레스와 마찬가지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반소매 드레스 외관평가 결과 전체적인 실루엣과 여유량에 관한 문항에서 비교원형보다 연구원형이 높게 평가되어 신체적합한 원형 설계로 사료된다.

<표 21>은 반소매 갈옷드레스 외관평가 자료를 제시하였고, <그림 12>는 반소매 비교원형과 연구원형 착의사진을 제시하였다.

〈표 21〉 반소매 갈옷드레스 외관평가 결과

항목	검사내용	비교원형(n=5)		연구원형(n=5)		T값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1	앞 전체적 외관	3.00	0.47	3.50	0.53	-2.23*
2	앞 목둘레선 위치	2.70	0.48	3.20	1.03	-1.39
3	앞 다트 위치	2.90	0.57	3.20	1.03	-0.80
4	앞 암홀라인 위치	2.80	0.42	3.40	0.97	-1.80
5	앞 중심다트 위치	2.80	0.63	3.30	0.95	-1.39
6	앞 진동 여유	2.60	0.52	3.50	0.97	-2.58**
7	앞 소매 여유	2.40	0.52	3.10	0.32	-3.65**
8	앞 목둘레선 여유	3.80	0.42	3.00	0.00	6.00***
9	겨드랑이앞백사이길이 여유	2.90	1.10	3.10	0.32	-0.55
10	앞 가슴부위 여유	2.70	0.67	3.20	0.42	-1.99
11	앞 허리부위 여유	2.80	0.42	3.00	0.00	-1.50
12	앞 배꼽수준허리부위 여유	2.30	0.48	3.00	0.00	-4.58***
13	옆 전체적 외관	2.80	0.42	3.70	0.48	-4.39***
14	옆 허리부분 여유	2.80	0.42	3.00	0.00	-1.50
15	옆 엉덩이부분 여유	2.50	0.71	3.00	0.00	-2.23*
16	옆 어깨선 위치	2.60	0.52	3.00	0.00	-2.44*
17	뒤 목둘레선 위치	3.60	0.70	3.10	0.32	2.01
18	뒤 어깨다트 위치	3.10	0.32	3.00	0.00	1.00
19	뒤 암홀라인 위치	3.20	0.42	3.10	0.32	0.60
20	뒤 중심다트 위치	3.10	0.57	3.00	0.00	0.56
21	뒤 진동부분 여유	2.30	0.67	3.10	0.32	-3.39**
22	뒤 목둘레선 여유	3.20	0.92	3.10	0.32	0.33
23	뒤 소매 여유	3.00	0.94	3.10	0.32	-0.32
24	겨드랑이뒤백사이길이 여유	2.60	0.52	3.10	0.32	-2.61
25	뒤 허리부위 여유	2.70	0.48	3.00	0.00	-1.96
26	뒤 엉덩이 여유	2.90	0.32	3.00	0.00	-1.00
27	뒤 중심다트 길이	2.70	0.48	3.00	0.00	-1.96

\*p<0.05, \*\*p<0.01, \*\*\*p<0.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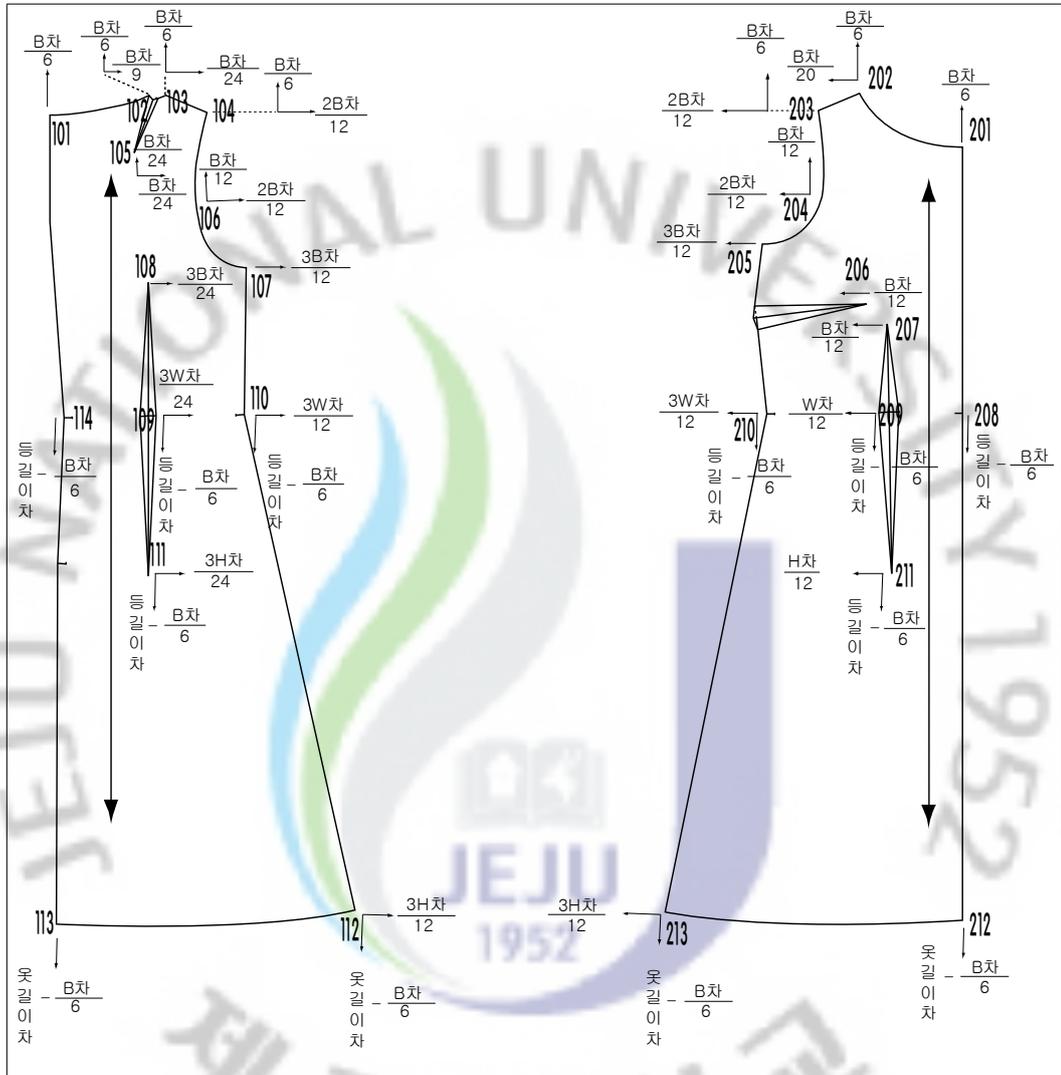
	앞	옆	뒤
비교 원형			
연구 원형			

<그림 12> 반소매 갈옷드레스 비교원형과 연구원형 착의사진

## 8. 그레이딩 룰 및 룰값 작성

그레이딩에 대한 룰은 조영아(1999)식을 참고로 하여 97-100-160를 기본으로 하고 94-97-155와 100-103-160을 <표 4>의 편차를 그레이딩 룰에 적용시켜 그레이딩 하였다. 구체적으로 패턴의 각 포인트 별로 번호를 부여하고, 번호를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한글명칭을 부여 하였고 포인트마다 X, Y이동량을 제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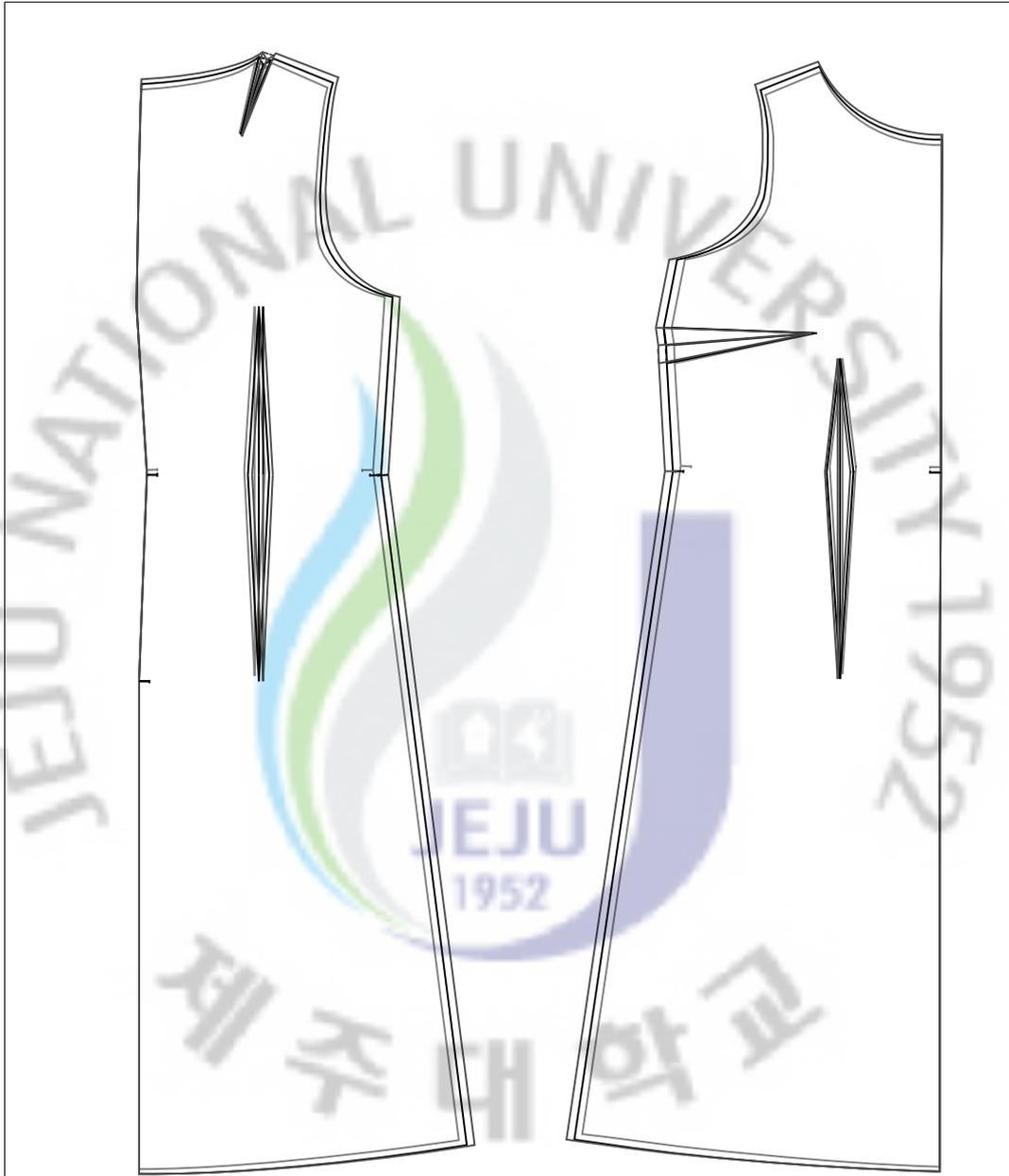
<그림 13>은 민소매 갈옷드레스, <그림 15>는 반소매 갈옷드레스의 그레이딩 포인트별로 번호와 그레이딩 룰을 제시하였고 <표 22>는 민소매 갈옷드레스, <표 23>은 반소매 갈옷드레스의 그레이딩 룰값을 표로 작성하였다. 포인트 번호는 100대는 뒤판, 200대는 앞판, 300대는 소매로 지정함으로써 피스마다 구분을 쉽게 하였다. <그림 14>는 민소매 갈옷드레스, <그림 16>은 반소매 갈옷드레스의 그레이딩 전개도를 제시하였다. <그림 17>은 정상, 과체중, 중도비만 3가지 체형의 연구원형 민소매 갈옷드레스를 착의한 사진을 제시하였고, <그림 18>은 정상, 과체중, 중도비만 3가지 체형의 연구원형 반소매 갈옷드레스를 착의한 사진을 제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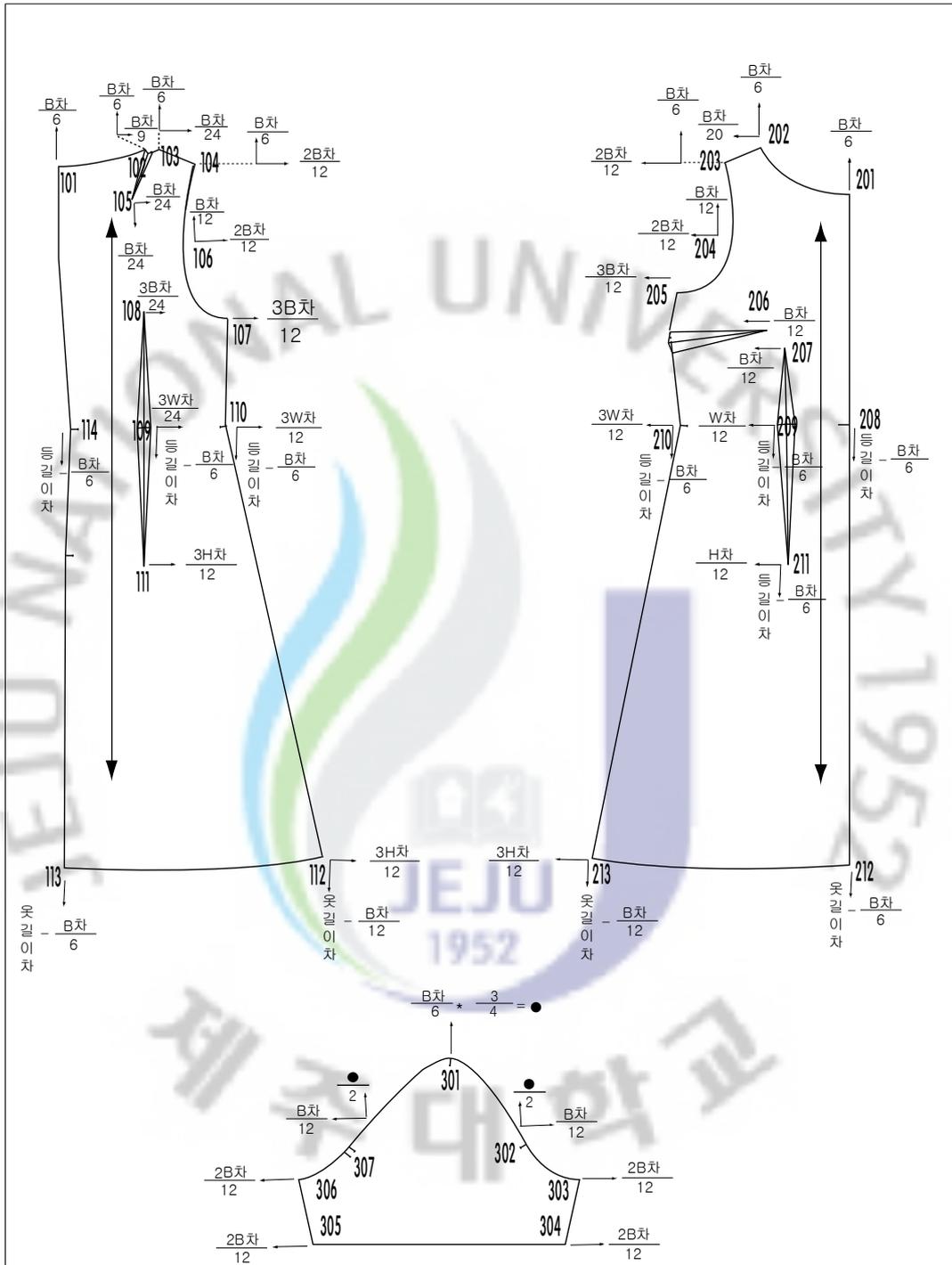
<그림 13> 민소매 갈옷드레스 그레이딩 룰

〈표 22〉 민소매 갈옷드레스 그레이딩 값

사이즈 이름		94-97-155		97-100-160		100-103-165	
번호	그레이딩점	X	Y	X	Y	X	Y
101	뒤목뒤점	0.00	-0.50	0	0	0.00	0.50
102	뒤어깨다트점	-0.33	-0.50	0	0	0.33	0.50
103	뒤목옆점	-0.13	-0.50	0	0	0.13	0.50
104	뒤어깨점	-0.50	-0.50	0	0	0.50	0.50
105	뒤어깨다트시작점	-0.13	0.13	0	0	-0.13	0.13
106	겨드랑이뒤벽점	-0.50	-0.25	0	0	0.50	0.25
107	뒤겨드랑이점	-0.75	0.00	0	0	0.75	0.00
108	뒤다트시작점	-0.38	0.00	0	0	0.38	0.00
109	뒤허리다트점	-0.38	0.00	0	0	0.38	0.00
110	뒤허리옆점	-0.75	0.50	0	0	0.75	0.00
111	뒤허리다트밑점	-0.38	0.50	0	0	0.38	0.00
112	뒤밑단옆점	-0.75	-0.75	0	0	0.75	0.00
113	뒤밑단중심점	0.00	0.50	0	0	0.00	0.00
114	뒤중심허리점	0.00	0.50	0	0	0.00	0.00
201	앞목앞점	0.00	-0.50	0	0	0.00	0.50
202	앞목옆점	0.15	-0.50	0	0	-0.15	0.15
203	앞어깨점	0.50	-0.50	0	0	-0.50	0.50
204	겨드랑이앞벽점	0.50	-0.50	0	0	-0.50	0.50
205	앞겨드랑이점	0.75	0.00	0	0	-0.75	0.00
206	앞옆다트시작점	0.25	0.00	0	0	-0.25	0.00
207	앞중심다트시작점	0.25	0.00	0	0	-0.25	0.00
208	앞중심허리점	0.00	0.50	0	0	0.00	0.00
209	앞중심허리다트	0.25	0.50	0	0	-0.25	0.00
210	앞허리옆점	0.75	0.50	0	0	-0.75	0.00
211	앞중심다트끝점	0.25	0.50	0	0	-0.25	0.00
212	앞밑단중심점	0.00	0.50	0	0	0.00	0.00
213	앞밑단옆점	0.75	0.50	0	0	-0.75	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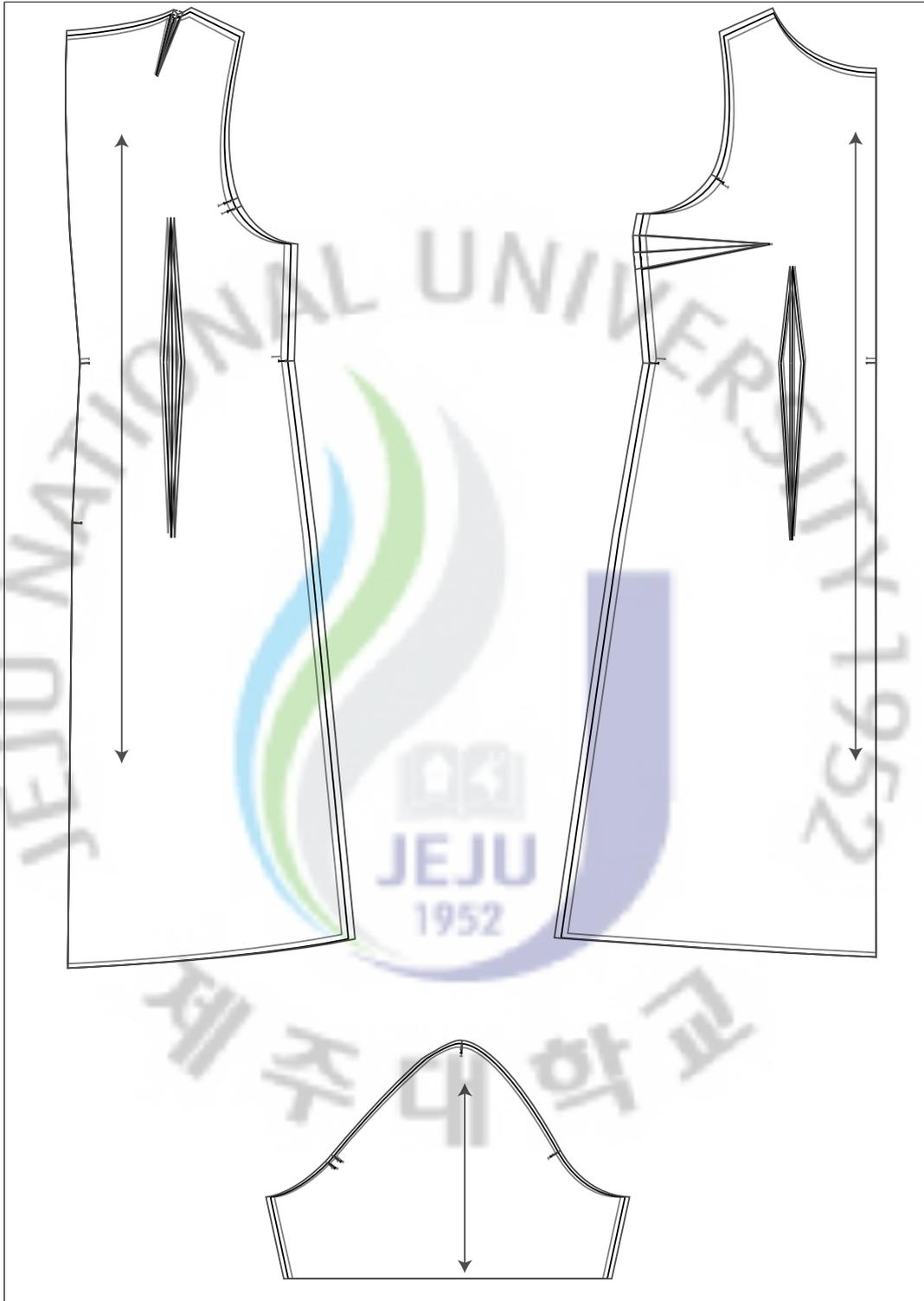
<그림 14> 민소매 갈옷드레스 그레이딩 전개도



<그림 15> 반소매 갈옷드레스 그레이딩 룰

〈표 23〉 반소매 갈옷드레스 그레이딩 값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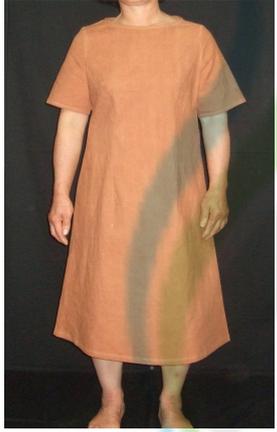
번호	사이즈 이름 그레이딩점	94-97-155		97-100-160		100-103-165	
		X	Y	X	Y	X	Y
101	뒤목뒤점	0.00	-0.50	0	0	0.00	0.50
102	뒤어깨다트점	-0.33	-0.50	0	0	0.33	0.50
103	뒤목옆점	-0.13	-0.50	0	0	0.13	0.50
104	뒤어깨점	-0.50	-0.50	0	0	0.50	0.50
105	뒤어깨다트시작점	-0.13	0.13	0	0	-0.13	0.13
106	겨드랑이뒤벽점	-0.50	-0.25	0	0	0.50	0.25
107	뒤겨드랑이점	-0.75	0.00	0	0	0.75	0.00
108	뒤다트시작점	-0.38	0.00	0	0	0.38	0.00
109	뒤허리다트점	-0.38	0.00	0	0	0.38	0.00
110	뒤허리옆점	-0.75	0.50	0	0	0.75	0.00
111	뒤허리다트밑점	-0.38	0.50	0	0	0.38	0.00
112	뒤밑단옆점	-0.75	-0.75	0	0	0.75	0.00
113	뒤밑단중심점	0.00	0.50	0	0	0.00	0.00
114	뒤중심허리점	0.00	0.50	0	0	0.00	0.00
201	앞목앞점	0.00	-0.50	0	0	0.00	0.50
202	앞목옆점	0.15	-0.50	0	0	-0.15	0.15
203	앞어깨점	0.50	-0.50	0	0	-0.50	0.50
204	겨드랑이앞벽점	0.50	-0.50	0	0	-0.50	0.50
205	앞겨드랑이점	0.75	0.00	0	0	-0.75	0.00
206	앞옆다트시작점	0.25	0.00	0	0	-0.25	0.00
207	앞중심다트시작점	0.25	0.00	0	0	-0.25	0.00
208	앞중심허리점	0.00	0.50	0	0	0.00	0.00
209	앞중심허리다트	0.25	-0.50	0	0	-0.25	0.00
210	앞허리옆점	0.75	0.50	0	0	-0.75	0.00
211	앞중심다트끝점	0.25	0.50	0	0	-0.25	0.00
212	앞밑단중심점	0.00	0.50	0	0	0.00	0.00
213	앞밑단옆점	0.75	0.50	0	0	-0.75	0.00
301	소매부리중심점	-0.4	0	0	0	0.4	0
302	앞소매산옆점	-0.25	-0.2	0	0	0.25	0.2
303	앞소매산겨드랑이점	-0.5	0	0	0	0.5	0
304	앞소매밑옆점	-0.5	0	0	0	0.5	0
305	뒤소매밑옆점	0.5	0	0	0	-0.5	0
306	뒤소매겨드랑이점	0.5	0	0	0	0.5	0
307	뒤소매산옆점	0.25	-0.2	0	0	-0.25	0.2



<그림 16> 반소매 갈옷드레스 그레이딩 전개도

	앞	옆	뒤
정상			
과체중			
중도비만			

그림 <17> 민소매 갈옷드레스 연구원형 착의사진

	앞	옆	뒤
정상			
과체중			
중도비만			

<그림 18> 반소매 갈옷드레스 연구원형 착의사진

## V. 결론 및 제언

현대 생활에 친환경 소재의 관심과 수요가 높아지고 있다. 패션 산업도 마찬가지로 환경 친화적 소재의 다양한 제품개발을 하고 있으며 이에 힘입어 천연염색 산업도 발전해 나가고 있는 상황에서 그동안 입증된 여러 가지 기능적이고 위생적인 성능을 가지고 있는 제주의 갈옷의 선호도 역시 높아져가고 있다. 그러나 체계적인 치수체계와 사이즈별 균일성을 가진 갈옷상품의 시장점유율은 낮은 실정이고 다양한 체형을 가지고 있는 50대 중년여성의 경우 갈옷상품을 구입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가지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중년여성의 체형을 고찰하고, 기존의 치수체계를 분석하여 신체적합성이 높은 갈옷드레스를 설계하고 보급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3종의 교육용 토르소패턴(K식, N식, SN식)을 검토하여 비교원형을 설계하고 비교원형衣를 착의평가 후 수정 및 보완 하여 연구원형을 제작하였다. 비교원형과 연구원형의 외관에 대한 관능검사를 실시하여 연구원형의 적합성을 규명하였다. 자료분석 방법은 SPSS/PC +12.0 Package를 이용하여 상관관계분석(correlation coefficient), T-검정(T-test)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통해 얻어진 결론은 다음과 같다.

1. Size Korea(2004)의 50대 중년여성의 인체치수 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가슴둘레(0.84), 젖가슴둘레(0.85), 젖가슴아래둘레(0.81), 허리둘레(0.81), 배꼽수준허리둘레(0.83), 엉덩이둘레(0.86)와 몸무게의 상관관계가 매우 높게 나왔고 두께-너비 관련 상관관계수를 보면 젖가슴너비(0.80), 허리너비(0.79), 배꼽수준허리너비(0.80), 젖가슴두께(0.76), 허리두께(0.78), 배꼽수준허리두께(0.77)와 몸무게의 상관관계도 높게 나왔다.

2. 몸무게, 둘레, 두께의 상관관계가 크므로 본 연구에서 50대여성의 BMI지수로 3가지 체형 즉, 정상체형(94-97-155), 과체중체형(97-100-160), 중도비만체형(100-103-160)으로 나누었다. 기존의 치수체계(가슴둘레-엉덩이둘레-키)와 연계

하여 원형설계에 적용하였다.

3. 50대 중년여성의 BMI, 키, 몸무게, 등길이, 앞중심길이, 가슴둘레, 젖가슴둘레, 젖가슴아래둘레, 허리둘레, 배꼽수준허리둘레, 엉덩이둘레를 직접계측한 자료와 Size Korea(2004)의 50대 여성 표준치수를 비교한 결과 직접계측자료에 의한 BMI지수치는 과체중으로, Size Korea의 50대 여성 표준치수는 중도비만으로 나왔다. 몸무게와 등길이, 앞중심길이, 가슴둘레는 비슷하였고 젖가슴둘레, 젖가슴아래둘레, 배꼽수준허리둘레는 직접계측자료가 크게 나왔고 허리둘레는 Size Korea의 50대 여성표준치수가 크게 나왔다.

5. 비교원형과 연구원형의 외관에 관한 관능검사 결과 둘레항목 여유분에 대하여 유의한 차이가 났다. 선행연구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중년여성은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수평항목이 증가하고 구간부가 굵고 두꺼워지며 특히 허리부위와 배부위의 둘레가 커짐으로 인하여 유의한 차가 나타난 것으로 사료된다.

6. 앞목둘레선과 뒷목둘레선의 여유분에 대하여 유의한 차이가 났다. 이러한 유의차가 나온 이유는 여성의 상반신 체형인 바른체형, 젓힌체형, 숙인체형, 흰체형 4가지 중 바른체형 다음으로 숙인체형과 흰체형이 많음(김소라, 2003)으로 인한 것으로 사료된다.

7. 민소매 갈옷드레스와 반소매 갈옷드레스 모두 비교원형보다 여유분을 더 주었고 앞판의 경우 목둘레선의 들뜨는 분량을 보정하기 위하여 1.5cm를 겹치면서 그 분량을 스커트로 이동하였고 스커트폭이 4cm 증가하여 옆선을 중심으로 스커트 폭을 2cm 줄였으며, 앞목둘레선의 겹침으로 인하여 겨드랑앞접힘사이 여유분이 0.56cm 적어지면서 적어진 분량만큼의 여유량을 더하여 여유분을 주었다. 뒷판의 경우 목둘레선의 들뜸분을 보정하기 위하여 어깨다트량을 0.5cm 더 주어 뒷목선라인의 들뜨는 분량을 보완하였다. 민소매 진동부분은 0.5cm 밑으로 내리고 진동선을 안쪽으로 자연스럽게 이동하였고, 반소매의 진동부분 1cm 밑으로 내려 소매부분의 답답함과 부자연스러운 동작을 보완하였고 진동선은 안쪽으로 자연스럽게 이동하였다.

8. 연구원형을 KS의류치수규격 그레이딩편차를 적용하여 정상체형(94-97-155), 과체중체형(97-100-160), 중도비만체형(BMI 28미만)-(100-103-160)의 갈옷드레스 원형을 제작하여 본 연구 피험자에게 착용시켜 착의평가 한 결과 전체적으로

신체에 적합한 갈옷드레스 원형으로 검증되었다.

9. 정상체형(94-97-155), 과체중체형(97-100-160), 중도비만체형(100-103-160) 연구원형을 피험자를 제외한 제주와 서울에 거주하는 50대 중년여성의 BMI만을 기준으로 정상 5명, 과체중 7명, 중도비만 4명을 착의시킨 결과 정상체형과 과체중체형의 경우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 중도비만의 경우 BMI지수가 28 이상인 경우 중도비만 연구원형의 체간부위 여유분이 부족한 현상이 나타났다. BMI가 28이상인 중도비만일 경우 그에 맞는 새로운 원형설계가 시도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이로써 50대 중년여성을 BMI지수로 체형을 분류하여 50대 중년여성의 체형을 보완한 연구원형은 외관상이나 착용감에 있어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급격히 변화하는 중년여성의 체형에 적합한 갈옷드레스 원형의 기초자료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 착의피험자는 50대였지만 중년여성체형의 특성이 나타나는 40대 이후 여성에게도 원형의 적합성이 높을 것으로 사료되어 후속연구에서는 연령범위를 확대하여 착의평가를 시도할 예정이다.

현재 갈옷전문업체와 50대 체형의 특성을 반영한 체계적인 기본패턴과 그레이딩 구축자료를 공유함으로써 갈옷기성복업체의 수선이나 재고의 부담을 줄일 수 있으면서 표준화된 대량생산을 능하게 되고 소비자들이 자신의 의복치수를 인지하고 맞춤새 있는 의복을 구매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결과 자료가 업체를 통한 보급과 활용으로 인해 궁극적으로는 50대 중년여성을 위한 신체적합성이 높은 다양한 디자인의 갈옷드레스를 상품화 하는데 기여 할 것으로 본다.

많은 소비자들이 의복구매 시 자신의 가슴둘레와 허리둘레의 치수를 정확히 인지 하고 있지 않지만 자신의 몸무게와 키의 치수는 인지하고 있다. 기성복의 치수체계를 BMI를 기준으로 한다면 많은 소비자들이 자신에게 적합한 의복을 쉽게 구입할수 있을 것이다. 피험자의 연령대를 확대한 후속연구가 필요하며, 본 연구에서 중도비만의 피험자를 BMI지수 25.64로 중도비만을 표준화하기 에는 한계점이 있었다. BMI가 28이상인 중년여성을 착의한 결과 젖가슴부분은 여유분이

많이 모자라지만 허리부분은 적합한 중년여성이 있었고 젖가슴부위 여유분은 많았지만 허리부위여유분은 적은 경우와 젖가슴둘레와 허리둘레는 적합하지만 윗팔둘레가 적은 여성 등 정상과 과체중보다 중도비만여성의 체형이 다양하게 나타났다. 그러므로 후속연구를 통하여 BMI가 28이상의 중도비만 중년여성의 경우 특이체형으로 분류하여 비만여성을 위한 드레스 원형 연구가 별도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 참고 문헌

- 강명아. (2008). *성인 여성의 체형별 토루소 원형 설계: 25~34세 여성을 중심으로*. 성균관대학교 일반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고광민. (1985). 제주도 민구(II), 제주도의 떼배와 그 어로 행위들. *탐라문화* 제4호.
- 고부자. (1971). *제주도 복식의 민속학적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가정과교육전공 석사학위 논문.
- 구신혜. (2005). *허브 추출액을 이용한 직물의 염색성 및 향균성*. 창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권수애, 최종명, 손부현. (2010). 20-50대 여성의 연령 및 실루엣에 따른 신체만족도와 의복적 합성. *한국의류학회지*, 34(3), 480-491.
- 권수애, 김인화. (2005). 중년 여성을 위한 마담브랜드 기성복의 재킷 치수체계 분석. *한국생활과학회지*, 14(4), 653-663.
- 권숙희. (1994). *여대생의 의복설계를 위한 체형분류 및 인대제작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권숙희. (1998). 18~54세 연령집단별 체형 차이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36(5), 17-27.
- 김경화. (1995). 노년기 여성 체형의 특성 및 유형화. *복식학회지*, Vol.26, 279-288.
- 김경희. (2007). 중년 여성의 체형에 관한 연구 -직접계측을 중심으로-. *복식문화연구*, 15(4), 677-687.
- 김과옥, 고부자. (1973). *의생활-농부복(시하의류)-. 갈옷 한국민속종합보고서 - 제주도편*.
- 김동섭. (2003). *제주 갈옷의 특징과 지역성*. 한국향토사연구, 제15집, 217-232.
- 김명옥. (1984). *중년기이후의 노화현상에 관한 분석적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석사학위 논문.

- 김소라. (2003). 중년여성의 상반신 측면체형 특성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41(11), 1-9.
- 김숙정. (2005). 30대 여성의 신체특성과 원피스드레스 원형에 관한 연구. 대구카톨릭대학교 디자인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김순자. (1995). 모아레 사진 촬영법을 이용한 중년여성 체형파악 및 착의평가. *한국의류학회지*, 19(2), 366-379.
- 김영숙. (1993). 노년기 여성의 의복구성을 위한 체형의 유형화.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김의숙. (1991). 제주도 목자복 고찰. 경희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김인호. (1998). *한국 제주역사 문화 뿌리학*. 서울: 우용출판사.
- 김재훈, 유혜자. (2003). 봉숭아 추출액의 염색성과 염색물의 항균성에 관한 연구. *한국염색가공학회지*, 15(1), 15-22.
- 김지민. (2003). 성인 여성복 토르소원형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김현주, 허복구, 박윤점. (2005). 장미 추출물을 이용한 실내조경 피복용 수태의 천연염색. *한국실내조경협회지*, 7(2), 13-20.
- 김혜경 외. (2001). *피복인간공학 실험설계방법론(개정판)*. 서울: 교문사.
- 김혜진. (2009). 3차원 인체 스캔 데이터를 활용한 중년여성 토르소 원형 설계. 영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노의경, 유명님. (2006). 델파이법을 이용한 천연염색에 관한 기초연구(제2보)-천연염색의 담면과제와 전망과의 관계 중심으로-. *한국의류학회지*, 3(1), 31-37.
- 박경숙. (2005). 중년여성의 연령에 따른 신체치수변화에 대한 종단적 관찰.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박순아. (2006). 중년 Plus-size 여성의 상반신 체형분류에 따른 원형연구. 배재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박순자, 박덕자. (1994). 갈옷의 제작방법과 디자인 개발에 관한 연구. *한국농촌생활과학회지*, 5(2), 207-215.
- 박순지. (1994). 중년기 여성의 하반신 체형 분석에 따른 슬렉스 원형 제작에 관

- 한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박영희, 오화자. (2003). 국화 추출액을 이용한 염색직물의 염색성 및 항균성. 한국 의류. 복식, 53(2), 119-125.
- 박영희. (2007). 까마중 추출물을 이용한 천연 염색직물의 염색성 및 항균성. 복식, 57(4), 61-69.
- 박주희. (2004). 20대 여성의 체형변화에 따른 원피스 드레스 연구. 대구카톨릭대학교 디자인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배상경. (2006). 산벚나무의 열매을 이용한 천연염색. 복식, 56(6), 145-152.
- 부애진. (1990). 제주지방 민속복인 활동복의 제작방법에 대한 연구 -갈옷과 해녀복을 중심으로-. 부산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 Size Korea. (2004). 의류제품 치수표준화 사업 최종보고서.
-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 Size Korea. (2004). 인체측정표준용어집.
-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 Size Korea. (2004). 제5차 한국인 인체치수조사 사업 보고서(2차년도 최종보고서).
-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 Size Korea. (2007). 한국인 성인 여성 체형별 3차원 인체형상 라이브러리 기반 구축.
- 서추연. (1993). 중,고 여학의 체형특성을 고려한 상반신 길원형설계 및 착의평가 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손희순. (1989). 우리나라 중년기 여성의 체형과 의복치수 규격에 관한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송미령. (1976). 우리나라 성인 여자의 의복구성을 위한 인체계측-도시직업여성을 중심으로-. 대한가정학회지, 14(3), 856-868.
- 신윤국, 오유정. (2002). fhwmakfl 추출물 이용한 면의 염색. 한국의류학회지, 26(3·4), 485-491.
- 심부자. (1999). 피복인간공학(개정판). 서울: 교문사.
- 심정희, 함옥상. (1996). 중년여성의 체형에 관한 연구-40~55세 주부를 중심으로 -. 한국의류학회지, 20(1), 128-141.
- 심정희, 함옥상. (2001). 중년여성의 체형분류 및 연령별 특징 연구. 한국의류학회

- 지,25(4), 795-806.
- 안경조, 김정희. (2001). 홍화를 이용한 매염 및 가공처리 직물의 염색성에 관한 연구. *한국염색가공학회지*, 59, 23-31.
- 윤지원, 서미아. (2009). 중년여성의 드롭치에 따른 체형 특성 연구. *복식문화연구*,17(6), 939-946.
- 이경미. (1992). *중년여성 기성복의 치수적합성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석사학위 논문.
- 이경화. (2010). 주요 비만 판정 지수의 비만 기준 비교. *복식문화연구*, 18(1), 93-108.
- 이범훈, 이범수, 정성훈. (2008). 키토산/나노실버 복합섬유 및 혼방편성물의 염착 특성. *한국섬유공학회지*, 45(5), 287-294.
- 이성민, 손희순. (1996). 20대와 40대 여성의 상반신 체형과 유방형태 분석 및 분류. *대한가정학회지*, 34(6), 231-245.
- 이성민, 손희순. (1996). 20대와 40대 여성의 상반신 체형과 유방형태 분석 및 분류. *대한가정학회지*, 34(6), 231-245.
- 이승렬. (1999). *이승렬패턴이야기*. 서울: 기술과 감성.
- 이정숙. (1982). *이조중기출토 면직물의 특성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정원 외. (2007). *영양판정(개정판)*. 서울:교문사.
- 이정임. (2001). *한국인 여성의 표준체형에 관한 연구 -18~24세 여성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이종현, 전은정. (1998). 사춘기 여학생의 초조와 체격요인간의 상관에 관한 연구. *응용과학연구논집*, 6(2), 355-368.
- 이진경. (1995). *중년기 여성의 하반신 체형에 따른 하의 치수규격과 슬랙스 원형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형숙, 남운자. (2001). *여성복구성*. 서울: 교학연구사
- 이형숙. (2000). *20대 전반 여성의 체형별 기성복 치수설정과 원형개방에 관한 연구*. 세종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장유경 외. (2006). *영양판정(개정판)*. 서울: 신광출판사.

- 전은경, 권숙희. (2000). *패턴제작의 원리*. 서울: 교문사.
- 전정혜, 성수광. (2004). 20~30대 성인여성의 신체계측치와 체지방의 상관성. *한국의류학회지*, 6(5), 641-647.
- 정명숙. (1994). *성인 여성 체형의 분류 및 연령층별 특징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정옥기. (2005). *내 손으로 하는 천연염색(개정판)*. 서울: 들녘
- 정진순, 설정화, 장정대. (2003). 고사리잎 추출액을 이용한 견직물의 염색성. *한국의류학회지*, 27(3), 364-372.
- 정혜락, 함옥상. (2000). 중년여성을 위한 기본 원형설계. *한국의류학회지*, 24(1), 105-115.
- 정화연. (2004). *청소년 전기 여학생의 의류치수체계를 위한 체형의 유형화 및 특성 연구*. 한양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조길수. (1980). *성인여성의 의복치수 설정에 관한 기초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조신형. (2006). *3차원 인체계측 방법에 의한 상반신 체형과 유방유형을 고려한 브래지어 패턴설계-30대를 대상으로 -*. 경희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주영주. (2002). 꼭두서니 염색성에 관한 연구. *한국의류학회지*, 26(9), 1301-1307
- 진성기. (1982). *남국의 민속(개정판)*. 서울: 교학사.
- 최광희. (1994). *임신부의 체형 변화에 따른 원피스 드레스의 기본 원형 연구*. 계명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최유경. (1997). *여성 체형의 형태적 분류 및 연령 증가에 따른 변화*.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최유미. (1994). *중년기 여성의 실제 체형과 인지체형에 관한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한영숙. (2005). 감즙과 감즙염색 면직물의 향균성. *대한가정학회지*, 43(3), 119-129.
- 함상옥, 심정희. (1997). 중년여성의 체형별 원피스 드레스 원형연구. *과학논집*, 23(1).
- 현혜경. (1976). *제주도 복식에 관한 연구-해녀복과 농민복(갈옷)의 실물을 중심*

으로-. 수도사범대학 석사학위 논문.

홍희숙, 홍병숙. (2008). 천연염색 의류제품에 대한 지각된 위험과 혜택 -천연염색제품지식에 따른 차이-. *한국의류학회지*, 32(9), 1343-1355.

홍희숙. (2001). 추구혜택과 패션이미지가 제주지역 패션문화상품 갈옷 구매의도에 미치는 영향. *대한가정학회지*, 39(2), 73-84.



부록 I. 직접계측 문항

이름:

나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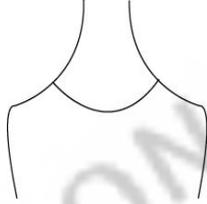
BMI:

키	
몸무게	
등길이	
앞중심길이	
가슴둘레 (구:윗가슴둘레)	
젓가슴둘레 (구:가슴둘레)	
젓가슴아래둘레 (구:밑가슴둘레)	
허리둘레	
배꼽수준 허리둘레	
엉덩이 둘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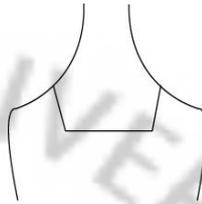
## 부록 II. 갈옷 디자인 선호도 설문지

1. 선호하는 원피스 목 둘레선(neck line)을 선택해 주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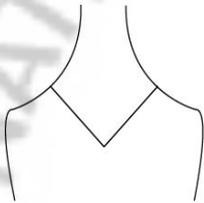
①. 둥근 목둘레선(Round necklin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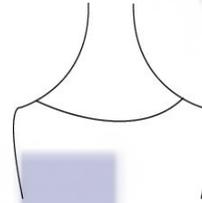
②. 네모 목둘레선(square neckline)



③. 브이 네크라인(V-neckline)



④. 보트 네크라인(Boat or bateau necklin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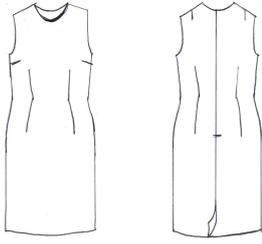
2. 선호하는 원피스 길이를 선택해 주세요.

① 무릎 바로 아래 ( )

② 무릎과 발목 중간 ( )

3. 같은 원피스 선호하는 디자인을 선택해 주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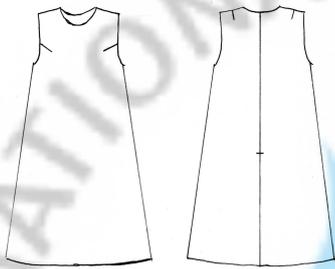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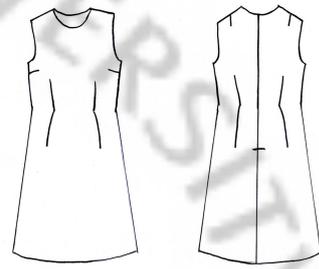
(2)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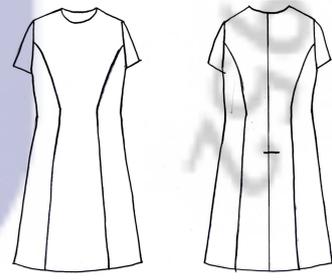
(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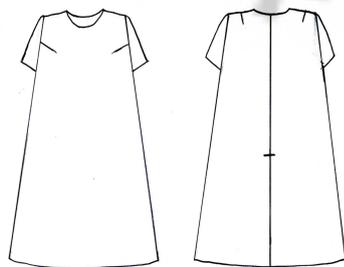
(5)



(6)



(7)



(8)



## Abstract

### A STUDY ON GAL OT DRESS PATTERN

#### -IN THE CASE OF THEIR 50's-

kang, ji-suk

Department of Clothing and Textiles

Graduate School of jeju National University

Supervised by Prof. Kwon, SookHee

Natural dyeing has drawn a lot of attention as consumers' interests in health, hygiene and the environment-friendly product have been growing. Among natural dyeing methods, dyeing with persimmon juice is hygiene and it includes many functions such as UV protection, durability, breathability and antibiotic functions. Based on the functions, Gal Ot (clothing) has been created with traditional island cloth known as 'gal-cheon' with the above-mentioned functions in Jeju island. Currently, the recognition and preference of the environment-friendly Gal Ot seems to be low. One of the reasons is that its size and naming system varies by manufacturer and even with the same naming system, the size still varies by manufacturer. In addition since the clothing pattern has focused on young women, it is difficult for old women to find the Gal Ot dress that'd fit them when they have a wide range of body sizes.

This study examined women between 50 and 59 who have the most significant change in size and divided them into 3 body types based on BMI.

Then, the study reviewed body sizes of women in their 50's provided by Size Korea (2004) as well as directly measured data to establish the size system for the study as follows; normal, overweight, and moderate obesity. The purpose of the established size system is to design original form of the Gal Ot dress for women in their 50's by supplementing the shortcomings of the existing dress form.

The suitability of body classification was clarified using BMI, and a sensory test was conducted on appearance of comparison and research form to insure the suitability of the research form.

As for data analysis, one-way ANOVA, correlation analysis, and T-test were carried out using SPSS/PC +12.0 Package.

The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the body sizes provided by Size Korea(2004) showed that there is a high correlation between chest girth, breast girth, under-breast girth, waist girth, waist circumference, hip girth, and weight. The result also showed that in terms of breadth and depth, there is a high correlation between bust breadth, waist breadth, waist circumference, bust depth, waist depth, waist circumference depth, and weight.

Second, the results of comparing standard sizes of women in their mid-50's provided by Size Korea (2004) to the standard size of direct measurement shows that the standard size provided by Size Korea (2004) was higher in BMI and waist girth whereas standard size of direct measurement was higher in height, weight, back length, waist front length, chest girth, bust girth, under-bust girth, waist circumference, and hip girth.

Third, the results on the sensory test conducted on appearance of comparison and research form shows that there was a significant difference in space of the girth items. It can be interpreted as results of preliminary study that the older the women are, the more weight and horizontal items they would have.

Fourth, there was a significant difference in space between front and back

neck girth. This seems to reflect the precedent study result that the number of old women with bent or crooked body type is little less than number of those with normal body type.

Fifth, the research showed that the research form is the original form of Gal Ot dress suitable for the entire body by designing the research form of normal(94-97-155), overweight(97-100-160) and moderate obesity(BMI under 28)-(100-103-160) based on grading difference of KS apparel size standardization, and dressing the subject for the study.



## 감사의 글

본 논문을 마무리 하면서 아쉬움과 뿌듯함이 교차 됩니다.

아낌없는 사랑과 많은 지도와 조언으로 논문을 지도해주신 권숙희 교수님께 큰 감사를 전합니다. 그리고 많은 관심으로 제 논문을 지도해 주셔서 완성도 높은 논문이 되게 해주신 이은주 교수님과 부애진 교수님께도 진심으로 감사를 전하며, 제 논문에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주신 이해선 교수님, 장애란 교수님, 장현주 교수님에게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논문을 쓰는 동안 많은 관심과 조언을 아끼지 않았던 홍지운 선생님과 옆에서 힘이되어 주었던 주형언니 우리 구성실 식구들에게도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항상 논문 끝나기만 목 빠지게 기다리는 고정옥여사와 강지홍오빠, 강지명, 논문 쓰는 동안 외로움과 친구된 남편 고승용, 연락 안 된다고 절친 바꾼 김민실, 항상 잔소리하며 지켜봐준 윤은진, 멀리 일본에 있을때도 응원해주던 김경아, 언제나 든든한 지원군 김수연, 많은 힘과 도움을 준 김해진, 권수연, 명관오빠, 설희미, 사랑하는 현경민, 제발 논문 끝내라며 응원해주었던 정순, 미아, 미연, 윤자, 은실, 희영, 논문 열심히 잘 쓰라고 힘을 주었던 이소영쌤, 유희경쌤, 엄해숙쌤, 송은화쌤, 깊은 관심과 힘을 주었던 임은숙 선생님, 김기억 선생님, 이현탁 선생님. 귀여운 후배 이안례에게도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또한 많은 사랑의 힘을 주었던 대학원 선배님들과 대학원 후배들에게도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2010년 12월

강지숙 드림